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점점 타락해갔던 역사를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0월 22일 (토) 제 160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완의 종교개혁, 완성시켜 나가자!

종교개혁주일 499년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교회 돼야

499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세계의 역사를 돌려놓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당시 부패하고 오만한 로마 카톨릭의 실상은 성직자로 있던 같은 동역자들에게까지 심한 혐오감을 주었고 결국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책결과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물론 개혁자들을 기억하고 개혁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이라 있는 교회들로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진실로 개혁자의 후예로 자처한다면 16C 개혁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 하나인 "Sola Scriptura(오직 성경)"는 실은 개혁의 근본이요 전부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상황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교회공동체에는 '제2의 종교개혁' 같은 구호만 많을 뿐 종교개혁의 유산과 개신교성(protestant)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예 종교개혁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주한 행사나 다른 설교로 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교회력을 준수하고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종교개혁기념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붙였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생긴 날이며, 이 날을 즈음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은 달력 속이나 존재하는 기일이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500년 가깝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계의 총체적 분위기는 당시의 탈성경, 초월성경의 분위기를 능가하고 있다. 종교화 되고, 화석화, 의식화되고 세속화됐다.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세속화의 극치를 이루고 의식과 형식은 세상을 뺀다고 경건의 진정한 능력과 초자연적 삶의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다. 무성한 말만 허공을 맴돈다. 그것은 미완의 개혁이었다. 이 시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개혁을 외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매년 종교개혁주일 뿐 아니라 일년 365일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끊임없이 행하는 현대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개혁의 영웅들을 기억한다면 통절한 심정으로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대가와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이 세우려 하셨던 주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사실 개신교의 탄생은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회가 오늘날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되새기고 기념해야 할 날이 종교개혁주일이다. 성장이 정체된 현실에서, 교회에 나갔으나 이제는 교회를 떠난 "넌스(Nones)"들의 증가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서방교회들이 줄줄이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사회문화에 밀려 변방문화가 돼버렸으며 사회를 선도하기 보다는 뒤따라가기 바쁜 시대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원래 목적 즉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원리들을 되새김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과 개혁을 위해서는 당연하다. 종교개혁의 의의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식화된 율법주의와 외식적 생활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성경의 교훈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회복운동이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적인 제도(Sacramental system)와 교회적 율법주의(Ecclesiastical legalism)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즉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좋은 전통을 유산으로 이어 받았다.

(3면으로 계속)

제자훈련, 마라톤처럼 시작하고 진행하라

리더십저널, 페리미터교회 랜디 포프 목사의 선교적 제자훈련 방안 소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의 영향력을 경험하며 동일하게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교회는 늘 영향력을 발휘한다.

랜디 포프(Randy Pope) 목사는 조지아 주 둘루스(Duluth) 시에 있는 페리미터교회의 담임목사다. 그는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애틀랜타 지역에 23개 교회를 개척했고, 페리미터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들과도 연합해 매년 애틀랜타의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사역을 펼치고 있다.

랜디 포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는 30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 성경이 예시하는 '삶 대 삶 선교적 제자도'(life-on-life missional discipleship)의 열매를 경험한다. 이를 정의하면, "자신의 삶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이 성숙하고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동일한 일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불신앙에서 신앙에 이르도록 돕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무장시키며, 다른 이들을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리더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삶 대 삶(life-on-life) 복음을 선교적 제자도로 무장시켜 미성숙한 리더 세우기보다 소수를 일대일 코칭 작업해야

마라톤과 단거리경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출발부터 다르다. 단거리경주는 0.01초라도 더 빨리 출발하기 위해 연습을 거듭하지만 마라톤은 천천히 출발해야 한다. 마라톤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하나가 바로 "신속한 출발"이다. 전반부를 천천히 달리고, 후반부를 더 빠르게 달리는 "네거티브 스플릿(negative split)"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유일한 길이다.

제자훈련은 단거리경주보다는 마라톤에 훨씬 가깝다. 교회가 제자훈련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영향력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고 깊어져서 결국에는 전교회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흘러간다. 이것이 많은 목회

자들이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근간을 제자훈련에 두고자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시도한 모든 교회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시작하지 처음 몇 해 동안에 그 열매를 얻으려는 시도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영당에 올리고, 몇 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 소그룹에 편성시키고, 그 소그룹에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사역에 투입하며, 리더로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리더의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아니 제자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제자훈련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6면 인/터/뷰 김만갑 박사
--	---	---	---



WE THE MESSENGERS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위 OM 창립자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혜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알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용 커뮤니티 헬로십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마이애미 커버넌트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찬양 사역자
 노 희송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5): 무신론자들의 집단화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들 가운데 자신을 무신론자(atheist)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들은 겨우 3.1퍼센트이지만, 어떤 종교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2007년의 16퍼센트에서 2014년에는 무려 23퍼센트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총인구의 3.3퍼센트 정도가 무종교자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거주민 전체의 약 3분의 1이 죽은 이후의 삶을 믿지 않으며, 미국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여성의 권리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는 방향과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거주민 수도인 새크라멘토에 수백명의 무신론자들과 이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무종교자, 무교회주의자(Nones라고 불리며,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교회나 어떤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들이 수천명까지 모여서 소위 자유사고의 날(Freethought Day) 행사를 벌이며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벌써 15번째 계속해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 십명 정도 모이던 모임이 점점 전국적인 조직과 활동을 하는 행사로 성장해가고 있어서 언론과 시민들, 특히 교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유로운 언어표현의 보장, 교회와 정치(국가)의 완전한 분리, 과학적 탐구의 능력 외에도 신이나 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제목을 '세속적 긍지(Secular Pride)'라고 명명하고 무신론자, 회의론자, 세속적 인본주의자, 불신자, 무교회자, 등을 동원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님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런 집회의 주요한 목적은 무신론자들이 더 이상 소극적인 소수 집단에 머물지 않고 정체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독교를 비롯한 기존 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집단들을 네트워크해 나감으로써, 그 활동 영역과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려는데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부모들로부터 동성애자란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에서부터 교회의 전도 활동이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불이익과 징계를 받고 가출한 청년들까지 실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의 모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무신론자들과 어울리며 어릴 때 형성된 연약한 신앙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불친절하고 인격을 무시하며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지내면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라도 자신들을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부모의 저주대로 지옥에 가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참석자도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연일 여과 없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목회자들의 성추문 사건들과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싸우는 소식들, 기독교인들의 부모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의 뉴스들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 불신자들을 점점 더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찍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탐욕과 불결한 쓰레기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통탄하셨던 복음서의 기록이 떠오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마 23:25).

신앙을 잃고 교회와 믿음의 부모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에게 등을 떠밀어 보내는 일을 멈추게 하려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말만 화려한 율법적인 신앙에서 떠나, 이제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얼마나 진도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진실 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tdspark@gmail.com

지구촌 난민위기 절박...이제는 '공동 대응'

뉴스위크, 유엔 첫 난민 정상회의에서 교육·일자리 개선 등에 합의

중동부터 유럽의 심장부까지 많은 나라가 국경 넘어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그중에는 전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 자국을 탈출하는 난민도 있고 가난을 면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이주자도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엔에서 지구촌 난민 문제로 모여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HOW THE UNITED NATIONS' NEW AGREEMENT ON THE GLOBAL MIGRANT AND REFUGEE CRISIS MIGHT WORK).

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자의 수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6530만 명이다. 그중에서 내전이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난민이 2,130만 명이다. 윌리엄 레이스 스윙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난민 외에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자도 2억44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것도 낮게 잡은 수치일 것이다. 게다가 자국 내에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이 7억5000만 명이다. 합치면 10억 명이다. 70억 세계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유엔과 미국은 지난 9월 난민과



지난 9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병원에 입원한 마무드 아브드 엘라티프는 침몰한 보트에 탔다가 구조된 이주자다

세계 인구 7분의 1이 난민...경제적 목적 이주자도 유엔관할에 포함이 큰 성과 52개국 정상회의: 45억불 증비, 36만명 수용, 100만명에 법적 지위 보장 등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했다. 스윙 사무총장은 그 문제를 두고 "21세기의 거대한 추세"라며 "유사 이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고 말했다. 근년 들어 유엔의 분쟁 해결 실적은 형편없다.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센·남수단 등 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볼라. 그러나 난민을 돌보는 문제에 선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제는 UNHCR,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이 공동으로 떠맡는다.

그러나 난민과 이주인이 위태로운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도착하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부터 케냐·터키·요르단에 세워진 대단위 난민촌까지 유엔 기구들도 이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에선 유입되는 난민과 이주인을 향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유럽에선 경기침체와외국에 자국민에게 제공돼야 하는 기본 서비스마저 위협 받는 형편이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민과 난민은 주요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무슬림의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윙 사무총장은 "난민·이주인 문제와 관련해 유엔

비어와 오해가 너무 심하다"며 "테러를 피해 자국을 탈출한 난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테러리스트로 취급 받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모두 이주자와 난민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하기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난민은 국제협약에 따라 법적 보호와 권리를 보장 받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관해선 그런 합의가 없으며 부유한 나라들은 현 상태를 바꿀 생각이 없다.

유엔의 뉴욕 이주자·난민 선언의 주요 협상대표는 디나 카와르 유엔 주재 요르단 대사과 데이비드 도노휴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였다. 카와르 대사는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에서 레바논·터키·요르단으로 쫓겨 들어가는 난민 수백만 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도노휴 대사는 주로 유럽연합(EU)의 난민 유입 상황을 다뤘다.

도노휴 대사는 합의된 뉴욕 이주자·난민 선언에 대한 열의가 기대보다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193개 회원국 사이의 이런 협상에선 도덕적 열정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문안이 약간 희석될 수밖에 없다." 협상대표들은 난민만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의 이주자도 유엔의 관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이번 정상회의의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의 근간이 되는 22쪽짜리 선언문은 본문 12쪽과 각각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부록 2건으로 구성됐으며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협상하기 위한 2년간의 일정표를 제시한다. 도노휴 대사는 "협상이 내년 초 시작돼 2018년 정부간 회의가 열릴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자에 관한 협약은 기초 작업이 많이 진척됐다. 선언문 부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대부분 다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각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이주자 자녀를 교육하는 규정, 기존의 이주자 부담을 국가 간에 나누는 프로젝트 등이 나와 있다. 더구나 선언문은 이주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도노휴 대사에 따르면 그 조항에 반대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적극 지지했다. "이전엔 이주자 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진 적이 없다. 해당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또 이번 합의는 난민에 초점을 맞춰 자국에서 박해가 우려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난민과 그 자녀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각국에 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국민을 송환 받을 것도 촉구했다.

내국 난민(IDP)에 관한 문제도 장점이었다. IOM 대변인 레너드 도일은 "IDP는 주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 시스템으로선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해당 국가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그런 내 문제다.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라'는 식이었다. 따라서 합의 문서엔 유엔이 IDP 보호의 필요성을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인정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만 언급됐다.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나라가 선언문 문안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기 원했는지는 이 문제의 골 깊은 견해를 반영한다. 카와르와 도노휴 대사는 어떤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달인 하나하나가 논의됐고 어떤 문제는 아예 금기 사안으로 건드릴지도 못했다.

협상 초기엔 기존의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새로운 난민 수용 부담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난민의 86%가 개도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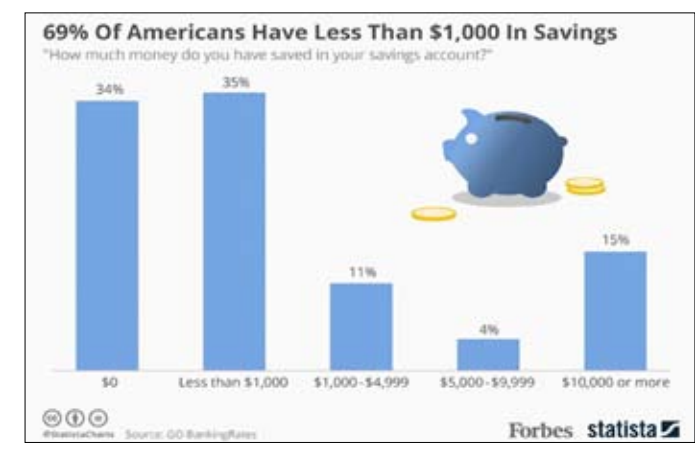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미국인 평균저축액, 1천 달러 못 미쳐

포브스, '고뱅킹' 미 전역 성인 7,0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밝혀



미국인 10명 중 7명이 1,000 달러 미만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Survey: 69% Of Americans Have Less Than \$1,000 In Savings).

고뱅킹(GoBanking)은 전국에 있는 7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저축액 현황을 조사하는

무저축 34%, 1천달러 미만 69%
1만달러 이상 상위 15% 불과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4%가 전혀 저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1만 달러 이상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위 15%에 불과했으며,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은 4%에 머물렀다. 1,000달러 미만으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00명 중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을 주도한 고뱅킹은 소득 수준 이상의 생활을 구가하는 인구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

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고뱅킹은 전자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현금 외 지불 수단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소비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준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주관적 경험보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

종교개혁 정신은 교회가 성경의 교훈에 입각해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자.

결국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파악할 능력과 자격이 갖춰진다. 개혁이란 이렇듯 충실한 사람들의 신실하고 진실한 삶에서 시작된다. 어쩌다 반짝하는 아이디어나 주변의 여론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일과 상황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정확한 개혁의 주체가 된다. 우리가 있는 곳은 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공간이며 우리는 그것의 주체가 돼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던 마틴 루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제자훈련, 마라톤처럼 시작하고 진행하라

각하면 안 된다. 내 눈앞에 보이는 회중들 중에는 잠재적인 마라톤 선수가 있지만, 그들은 아직 경주에 참가하겠다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을 일깨워 제자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단에서 빈번하게 제자훈련과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화거리로 삼아야 한다. 또 제자훈련생들을 모집하기 전에 미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 작업을 몇 년 간 계속, "속도를 늦추며" 진행해야 한다. 신속하게 훈련시키려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한 사람씩 만나서 코칭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거창하고 성급한 목표를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쳐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 제자훈련 목회가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한 사람씩 변화시키면 그 자체로 가속도가 붙게 돼 속도를 늦추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는 우선 출발선에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모이고, 출발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회중들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한 번 선포하는 것으로 비전 제시가 끝났다고 생

특별 기고

종교개혁기념일

“목회자와 성도의 주중 관계와 삶의
암적 존재인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버리자“



강승호 목사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마틴 루터(1483-1546)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카탈리의 비진리성과 부패에 관한 질의서를 붙이고 종교개혁의 가치를 높이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확산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개혁이란 종교를 비롯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요구된다. 개혁은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개혁이 없는 곳에는 답보 상태만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종교개혁일을 앞두고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주중 관계를 잘 이해하자. 종이란 주인을 모시고 겸손을 나타내는 삶이다(벧전1:1)

목회자의 윤리관

1. 목회자나 성도는 자기가 유명세가 되지 말고 주인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정신 예수의 흔적을 갖자(갈6:17).
2.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안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이 바른 삶이다(삼상15:22).
3. 나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관리자로 소유권은 없다. 공수거 인생사다(눅1:21).
4. 자신을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안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한다(빌1:20).
5. 자신의 영광위해 살아가는 안된다.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면 후광을 입는다(고전10:31).
6.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랑 아닌 예수를 자랑하자(갈6:14).
7.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알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몸이다(고전6:19).
8. 자녀들은 영원한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요일4:4).
9. 종이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우셨다는 의미다(요15:16, 요15:2. 벧전1:1).
10. 그러므로 목회자도 성도들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벧전 4:11).

목회자가 갖춰야 할 10대 영성

1. 목회자는 올바른 윤리관을 갖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자. 겸손(잠18:12), 섬김(마2:28), 경건 삶(고전15:10).
2. 언제나 앞드러지는 기도 생활이

다. 기도는 만능이다(마7:7), 성령 충만이다(행1:8). 하나님 말씀은 능력에 있다(고전4:20).

3. 설교를 잘해야 한다. 영의 양식이다. 세상 지식보다 성경이고, 심자가 없는 설교는 울리는 꿩소리다(갈6:14).

4. 심방을 열심히 해야 한다.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흩어진다. 골방, 책방, 심방은 필수다(렘48:10).

5. 교육을 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정상인을 인도할 수 없다(마15:14).

6. 행정을 바로 세워라. 행정은 조직, 인사, 재부가 관건이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전14:40).

7. 사랑을 실천하자. 돈을 사랑치 말라, 기독교는 희생이다. 심자가 사랑을 가지라. 세 계명 은 사랑이다(고전13:34, 고전13:13, 요12:24).

8.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한다. 건강 없으면 다 잃는다. 박력 과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라(요삼2).

9. 실력을 갖추라. 고루 갖춘 인격자가 되라(호4:6, 잠1:7).

10. 주는 교회와 되라. 공수거 인생사다. 졸 때 받게 되고(눅6:38), 심은 대로 거둔다(갈6:7-8).

끝으로 목회자의 암적 존재인 "명예욕, 물질욕, 이성욕"을 멀리 하자. 사울, 시므이, 요아스, 하만, 가롯 유다, 나발, 롯의 아내, 발람, 아간, 아니야 삼비라, 삼손, 아합, 솔로몬 모두가 명예, 물질, 이성애에 빠져 멸망을 자초하였다. 세상은 험악해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 상천하지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단도 든든하고 교회도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섬김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gospel_5th@hot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잔인하게 이기지 말라 -칸넷사의 투쟁

운동 경기는 반드시 한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진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이긴 자는 필적 필적 뛰며 환호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기뻐한다. 그러나 진 자는 고개를 꼭 숙이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뿌리기도 한다. 그런 장면을 보면 웬지 모르게 이긴 자에게 승리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패자에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다. 어쩌면 인생은 승리의 순간보다 실패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지 모른다. 고로 승자는 패자에게 다가가 꼭 껴안고 위로 할 수 있겠는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약관 24살로 폐기만만 한 나

이었고, 이제껏 어머니의 섭정으로 인해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대단했다. 또한 황제의 잃어버린 영토도 회복하고 싶었고....

교황 또한 대단히 외골수적인 성품의 강인한 개혁자였다. 그는 클리니 수도원의 일원으로 교회 개혁에 앞장서서 일했던 수도사였다. 세속적 간섭을 몰리친 독립적인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즉 지역 영주와 결탁하여 성직을 매매하고, 처자식을 거느린 수도사에 대해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했다. 이런 청빈한 수도회의 리더 힐데브란트의 리더십은 민중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후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알렉산더 2세에 의

해 그레고리 7세로 교황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교황이 되자 교황이 세상적인 황제나 제후보다 우월하다고 선포했다. 또한 개혁의 의지를 굳게 다짐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황제의 주교 서임권이였다. 당시 각국의 주교 서임권은 해당국가의 왕들이 지니고 있었다. 고로 주교들은 교황의 말보다 왕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이런 행동이 곧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다고 여겨 왕에게서 이 서임권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독일은 오랫동안 제후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영지가 있었으나 황제에게는 봉토가 없었다. 그래서 제후들은 황제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았고, 황제의 힘이 강해질 것 같으면 죽이거나 잡아치우곤 했다. 고로 황제에게 주교 서임권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기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다.

황제는 그레고리 7세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을 부추겨 교황을 폐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교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황제를 파문하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서 폐위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왕권 강화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제후들은 이 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강력한 교황을 두려워하여 황제를

반대하는 제후들이 1076년 10월에 모여 왕의 모든 상징물을 버릴 것과 교황과의 화해를 받을 때만 황제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황은 자신을 따르는 제후들을 아우스부르크에 소집하여 향후 황제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궁지에 몰린 하인리히 4세는 선택의 여지없이 교황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1077년 1월, 교황은 아우스부르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를 떠났다. 그런데 며칠 후 황제가 이탈리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순간 당황한 교황은 카노사 성의 성주였던 마틸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줄 알고 두려워했던 교황은 황제가 자비를 구하는 고해자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1077년 1월 25일 칸넷사에 도착한 황제는 혼자 아니었다. 곁에는 아내와 3살짜리 콘라드를 동행시켰다. 파문을 내린 교황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황제는 그 추운 날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칸넷사의 성문에서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교황이 머무는 방문은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라도 빌고 또 빌더라도 교황의 선처를 반드시 받아내야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였다. 26세의 폐기 넘치는 황

제와 산전수전을 다 겪은 50세 교황의 수 싸움은 치열하기만 했다. 이들이 지났는데도 교황은 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을 극적으로 화해시킨 것은 성주 마틸다와 클리니 수도원장 후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 까? 용서를 구하는 자를 거절할 수 있었을 까? 베드로의 후계자가 추운 겨울날 성 밖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황은 1077년 1월 28일, 삼일 만에 문은 열리게 되었다. 결국 교황은 자신의 미사에 황제를 참석케 함으로 파문을 거두어 들었다.

황제가 돌아가기 전 만찬을 베풀었으나 하인리히 4세는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아마도 마음에 풀이오르는 복수심을 꼭꼭 잡아내고 있었을 것이다. 상대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데 그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로 돌아간 황제를 제후들은 받아들였고 황제는 힘을 길렀다.

그러던 중에 작센지방의 영주들이 대립 왕을 세웠다. 분노한 황제는 작센지방으로 쳐들어갔고 그들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황은 이내 황제를 파문하자 황제는 곧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에 쳐들어왔다. 로마를 점령한 왕은 교

황의 폐위를 선언하고 그를 산타 안젤로 성에 구금했다. 그리고 라벤나의 대주교 기베르를 후임 교황으로 추대했는데 그가 바로 클레멘스 3세다. 클레멘스 3세는 감격하여 황제 하인리히 4세의 머리에 번쩍이는 관을 친히 씌워주었다.

산타안젤로 성에 구금된 폐위된 교황은 자신을 구하러 온 노르만 사람 로베스 가스카르를 따라 나폴리 아래 살레르노로 망명해야 했다. 노르만인은 바이킹 족으로 전에는 도둑질을 일삼던 족속이었다. 그런 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교황은 1년 후 1085년 가슴에 한을 품고 거처를 옮겨 살레르노의 카테랄레(Catterle del centro storico)성당에 밀랍으로 만들어져 관에 넣어 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다. 그래서 망명지에서 죽노라." 교황이 힘이 있었을 때, 칸넷사에서 자신에게 용사를 비는 젊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를 좀더 따뜻하게 용서하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승자로서 패자를 잔인하게 이기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종교개혁주일 설교

이정근 목사
(미주성경대학교 명예총장)



1517년 10월 31일, 젊은 신학교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당 벽에 95개조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Reformation)의 신호탄으로 499년 전 일입니다. 내년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는 곧 기독교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독교 개혁주일입니다. 아니, 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주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에덴동산 교회가 부패하자 노아를 통하여 방주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공동체가 부패하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선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완성의 길로 들어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루살렘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민족교회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다윗,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요나, 엘리야, 요시야, 스룹바벨, 세레 요한, 열한 제자

종교개혁의 진원지인 비텐베르크 성전 일대에는 500주년 기념표어로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의 현수막이 여기저기에서 펴 펴 휘날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sola fide)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신득의(以信得義)입니다. 이것은 로마교회의 이행득의(以行得義) 곧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는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

는 절대권자로 삼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내가 천국열쇠(들)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8-19)는 말씀을 교황절대권 수호를 위하여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아, 구원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베드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에게 는 누구나 천국열쇠를 주신다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마16:23)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안에 한에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입니디. 이 점은 루터보다는 칼뱅이 훨씬 더 강조했던 개혁신앙입니다.

개신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룩한 혁명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교회개혁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루터나 칼뱅 같은 지도자를 처형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찌 인간의 음모로 분쇄할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가 지금 이 지구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단계가 되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기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운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면 500년 곧 반천년을 당당하게 걸어온 이 종교개혁운동이 남긴 적극적인 영향력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온 인류에게 자유와 자율을 선물했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고, 자본주의를 통하여 산업을 발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칼뱅 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가야 한다"(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는 부패의 온상이요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가톨릭교회가 지금 와서는 개신교회에 오히려 개혁의 경고를 보내는 점도 있습니다. 개체교회주의, 교회의 내분, 무자격 목회자들의 발호 등으로 지금은 오히려 개신교회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점이 현저합니다.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23:33)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것처럼(창1:26-28)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 창설하셨습니다(히8: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천국)의 형상입니다. 개혁자들이 회복시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형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 500년을 지나 1천년, 2천년을 넘어가려면 이런 진리를 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God's ruling)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뚜렷해집니다. 특히 지구국가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주로 영접하여 확실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교회를 교회되게(Let Churches Be the Church) 하는 일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만 새롭게(베오스)가 아니고 질적으로 영원히 새롭게(카이노스) 하십니다.

leeunion@hotmail.com

영혼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성취해낸 영웅들이 어엿합니다. 우선 루터가 가장 큰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칼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초월극리를 포함하여 3대 개혁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앞장섰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안후스가 종교개혁의 씨를 뿌리다가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새로 번역하여 공급했던 영국의 위클리프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을 정리했던 멜랑히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설자 존 낙스, 영국 국교회 39개조 신앙고백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웨슬리,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들이 종교개혁을 성취해 낸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일반역사가들이나 교회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르네상스 곧 고전문화의 다시 부흥시켜낸 문예부흥이 원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 당시 너무 부패했다는 것,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신도들의 문제의식이 심해졌던 것, 특히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 민족국가 발전으로 인한 정치적 환경, 북유럽의 돈이 면죄부 판매 등으로 남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저항....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원인들입니다. 합리적 시각에서 역사를 분석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교회개혁은 단연 '만물을

와 바를 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 공동체를 개혁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기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교개혁을 성취했던 교회지도자들은 다섯 가지 기초를 튼튼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출발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과오를 고치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를 바르고 튼튼하게 세우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의 회복입니다. 곧 '오직 성경'(sola Scriptura)입니다. 이것은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회와 신앙의 최고 표준을 '오직 교황'에 두었던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교황 무오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교황의 결정은 성경과 똑같은 아니 성경보다 더 우위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개혁자들은 이에 대항하여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표준'으로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독일어성경 번역을 목숨 걸고 실천했습니다.

리라"(요3:16)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에 베드로성당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면죄부 혹은 천국입장권 판매를 정당화시켰던 가톨릭교회의 부패에 저항하고 성경말씀의 진리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오직 은혜'(sola gratia)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롬3:24)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엡2:8)고 거듭 확인합니다. 마치 사형수가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무죄처방된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성 회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입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

천국열쇠인 복음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바로 그 진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바로 그 변질된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행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주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간집행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궁극적 목적 회복입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으로 선언했습니다. 로마가톨릭교회가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특히 교황과 성직자들에게로 돌린 데 대한 저항(프로테스트)을 한 것

시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처럼 공산주의 독재를 막아냈고, 모든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인권존중과 남녀평등과 국민교육의 수준을 현저히 높였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책의 종교'가 됨으로써 인류문명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가톨릭교회로 하여금 자체개혁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디. 이것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무효화시킨 결과입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이던 사이비들이 발호하게 되었습니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인들에게 지나치게 적대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교회론이 약화되었습니다. 보편적 선행 곧 도덕성을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미신자들을 위하여서도

다되며 "중미의 폭력시대가 강압적인 난민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높이 사면서도 "번드르르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로 뒷문에서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데도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2면에서 계속)

이주자·난민 권의 운동가들은 난민의 10분의 1을 재정착시키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는 '협력'이라는 모호한 약속만 들어갔다.

인권과 관련된 표현도 약화됐다. 도노휴 대사는 "인권 문제를 아주 중시하는 선진국과 인권 침해의 비난을 받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협상에선 언제나 긴장이 고조된다"

고 말했다.

인권에 관한 문구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처음엔 유엔 정상회의와 같은 날 난민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많은 논의 끝에 미국은 유엔 정상회의와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루 늦췄다. 미국은 더 전형적인 제안을 하기로 동의한 국가만 한자리에 모았다.

미국이 주도한 난민대책 정상회의는 캐나다·에티오피아·독일·오르단·멕시코·스웨덴·미국이 공동 주

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52개 국가·국제기구가 회의에 참석해 유엔과 국제 구호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지난해보다 45% 달러 늘리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수용하는 난민을 두 배로 늘려 36만 명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난민 어린이 100만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100만 명의 난민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정상회의에서 어린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미국은 난민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나라로

비쳐지길 원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어린이 이주자의 구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중 다수는 중미에서 폭력을 피해 부모 없이 탈출한 아이들이다.

유엔 문서의 초안은 부모가 동반하지 않아서 부모의 이주자 신분 때문이던 미성년자의 구류는 '어린이를 위한 최선'이 결코 아니다'라고 돼 있었다. 미국은 그 문구를 '최선인 경우가 거의 없다'로 수정했다. 그에 옥스팜 아메리카와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엠네스티 USA를 포함한 35개 인권단체가 큰 실망을 표했다.

비정부기구 '변화가 필요한 어린이'의 웬디 영 사무총장은 "구류가 어린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이주자·난민 대책 정상회의의 결재 어린이를 위한 '그림자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 영 사무총장은 미국이 어린이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중미 출신 어린이는 여전히 난민이 아니라 이주자로 분류

된다며 "중미의 폭력시대가 강압적인 난민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높이 사면서도 "번드르르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로 뒷문에서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데도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 만드신 원 세상은 질서와 조화를 통한 아름답고 넉넉한 자유의 축복이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새를 만드시기 전에 하늘 궁창을 열어두셨고,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는 바다를 먼저 만들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하라'하신 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참된 만족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 입을 넓게 열라'하신 후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만약 입도 열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넣어 주려하면 얼마나 낭패스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위에 복을 담아주시듯이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

는 분이시다.
 눈을 열어 세상을 보노라면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 그리고

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정치인과 의료인 등 최고 엘리트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고집스런 말의 전쟁들도 똑똑히 그 한 뭇을 감당하고 있다. 혹자는 한국의 상황들을 2017년이 정유년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이어 재점화시킨 정유재란을 앞에 둔 풍전등화의 말로서 한국사회를 설명하기도 한다.

세상에 비해 가정과 교회는 어떠한가? 가정과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무너짐 현상도 이제는 많기에 부정적인 측면도 많을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세계각지의 한인교회와 선교지에서도 비일비재한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찾아보기 어렵고,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형식과 질서를 거부

치하며 살기를 좋아한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순종의 영이 아닌, 신실신을 막론하고 그 출발에 불순종의 영이 배후세력이며 이들과 영적전쟁터가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엡2:2). 사단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운행에 대해 그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마음의 방향대로 감성의 방종을 사용하도록 유혹한다.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위한 고집스런 용에 자신을 방치하게 만든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존귀한 삶을 지워내고, 저들 속에 숨어있는 회복되지 못한 죄성들과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 할 죄의 불순물들을 여과 없이 도해

리난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피할 수 없도록 네 사랑 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게 된다. 여기에 생각이 머문다. 사흘길을 아버지들 따라 집을 나설 수 있는 순종의 자녀, 제단에 묶인 채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릴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씀에 따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하심은 분명한 질서의 순복에 대한 열매가 분명한 것이다. 오늘날 성경의 이 말씀을 얼마나 넘어서고 있는가? 특별히 부모는 눈에 없고 제 자식밖에 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불순종과 거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의 회복-

보이지 않게 치러지는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을 보노라면, 눈을 열어 세상을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무척 고통스럽다. 애써 복음 안에 담겨진 소망과 사랑의 은총을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청교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국다운 품격들을 내쳐버리고 지저분한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생의 악과 죄를 고스란히 영적인 필터 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노라면 미국 시민의 전통적인 자존감을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최고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합되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좋지 않은 추억으로 국민을 갈라놓을 것 같은 일들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시공장 오물처럼 쏟아내는 것을 본다.

최근 방문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아도 비슷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눈에 분명한 부정과 부패를 고집스러움으로 지켜내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 오리무중 수수께끼 속에 감춘 듯한 비밀스런 재단과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 국민은 점점 더 혼란의 대중화만을 느끼고 있다. 어느 농민의 무리

하는 일 또한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게 나타나고 있다. 영육 간에 혼돈된 시대 그 자체를 살아가는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과 삶의 혼돈의 정점에 이까지 개인주의의 고집스러움으로 무장한 인간 능력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삶을 질서 지우지 못하는 방종이 있음을 보게 된다. 외적으로는 모두가 어느 한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간판의 타이틀을 걸고서 세상출세도 하고 리더십을 얻을 기회를 가졌겠지만, 저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양은 회칠을 몇 번이나 해서 번듯하고 관잖아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도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일 따름이다.

울음과 트림, 웃음과 나쁨, 그러한 것에 대한 구별의 함량이 부족하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善) 질서에 항복하면 참 자유가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외면한 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파괴적이고 저질적인 고집과 혼돈에 자신과 상대, 공동체를 방

내게 만들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거역의 불순종

권위와 질서를 해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거역이다. 십계명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땅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축복의 계명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훈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며 겸손히 거하는 삶과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복은 예비된 축복의 열매로 드

교회와 예배의 형식과 질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파괴의 초점은 교회와 예배에 맞춰진다. 성도의 영적인 무너짐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구태여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예배로부터의 탈출을 선언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구별되게 예배드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불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참된 교회와 예배에는 사람의 편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형식이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세대가운데 질서와 형식을 말하면 율법주의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는 성도가 기꺼이 순복해야 될 분명한 질서와 권위, 형식이 존재함을 말한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현재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는 중보기도 회원입니다. 성경공부 중에 종말의 징조로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어느 곳에 그런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배

A: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심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생길 종말론적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계시로 로마서 11장에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롬11:1)에 아니라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과거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는 밥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애에게 밥을 주면 자기 아이가 시기심이 나서 나중에 밥을 먹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의 밥을 먹지 않자 하나님이 복음의 밥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전세계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11-12절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

롬11장...유대인 다수가 주님께 돌아오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총만한 수가 이뤄질 것 예고

러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로마서 1장 25-2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 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원약)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총만 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민족을 구원 얻게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이스 베코프(Louis Berkhof)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 중 택한 백성을 일파씩 구원해낸 결과로 택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바빙크 박사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머레이(John Murray) 박사는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택한 백성이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회개하지만 나중에는 정점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인 박운선 박사가 쓴 '개혁주의교리학'의 종말론 부분은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의 대거 회개할 시기가 한번 있다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p.472). 한국이 낳은 조직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 '내세론'에서 여기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문맥적으로 맞으며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생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 전수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개혁주의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도 그의 책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에서 유대인들의 다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와 유대인의 총만한 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p.138).

부목사 청빙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1인)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 1) PCA(미국장로회) 교단에 가입된 분 또는 가입이 가능한 분
- 2) 개혁주의(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분
- 3)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에 경험이 있는 분
- 4)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연령이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제출)
- 2) 자기 소개서 (사역 계획 내용 포함)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 5) 최근 설교 1편 (CD 또는 Webpage Link)
- 6) 추천서 2통

제출 기간

마감: 2016년 11월 30일 (수)

제출 및 문의 (이메일 또는 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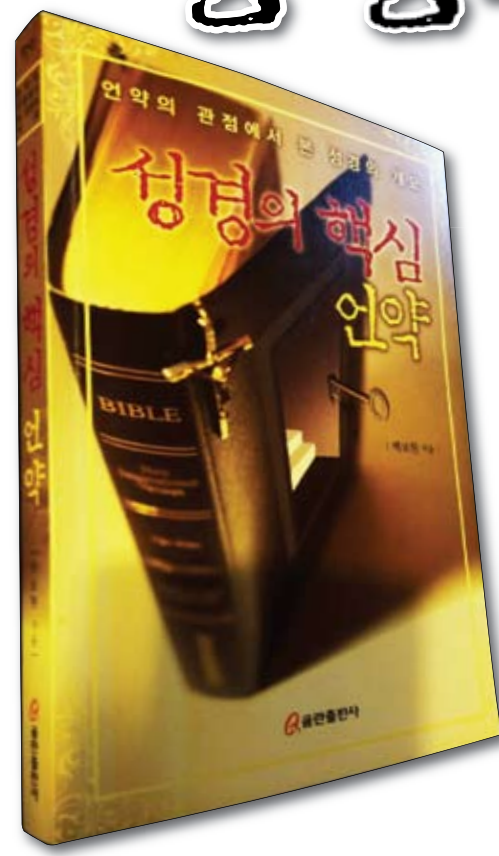
- 1) 홍경하 목사 (이메일 pastorkenny@gmail.com)
- 2) 우편 제출 (Pastor Kenny Hong)
15051 E. Iliff Ave., Aurora, CO 80014
- 3) 문의 전화: (303) 337-9191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www.newlifeco.org

언약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개요

성경의 핵심 언약



이 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도표로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언약의 통일성을 통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된다.
- 셋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감동된다.
-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나라의 복된 삶이 열린다



저자_백보현

Yui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M.Div)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D)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M)
Cohen University 기독교번역대학원, 기독교교리사 교수
남가주 호스피스 전도회 설립
저서- 지성과 신앙의 대화 (2001 콜란출판사)
미주민간 10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의 종언을 만나다(2003콜란출판사)

권당 \$18 (무료우송) 10권 이상 \$13 (무료우송)
주문처 (714)200-3430
Pay to order of: Simon Paek
2523 Avocado st, Fullerton CA, 92835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정리하여 이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감을 밝힘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증거합니다.
| OC 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업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예멘계 아랍(YEMENI ARABS)



9개 국가(마다가스카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지부티)에 거주하는 10개의 예멘계 아랍인들의 통합 프로파일. 대부분의 학자들 견해는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이 본래의 아랍인이라고 한다. 아랍의 문화는 수백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과 촌락민의 부족들에 의해 발전했다. 또한 아랍인의 이주가 시작돼 결국 아랍 세계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한 것도 그

곳에서였다. 오늘날, 1200만 이상의 예멘계 아랍인들이 예멘공화국에서 살고 있으며, 또 679,000명이 주변 국가인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지부티에서 살고 있다. 예멘계 아랍인의 사회구조는 4가지 계급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드"(Sayyid)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모하메드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카타니"(Qatani)는 부족민들이고, 샤피파(Shafii) 촌락민들은 상인이나 기술자, 장인의 직업을 가지고, "아크담"(Akhdam)은 노예다. 예멘계 아랍인들은 역사상 이슬람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는데, 오늘날 예멘에서 살던 다른 나

라에서 살던 예멘계 아랍인들 거의 전부가 무슬림이다. 그들의 거의 절반은 자디스(Zaydis)와 무슬림이고 40%는 샤피파(Shafii)이며 5%는 이스말리파(Ismailis)다.

삶의 모습 예멘계 아랍인들의 사회는 1,700여개의 부족 또는 씨족으로 이뤄져 있다. 이 다양한 부족들은 "셰이크"(sheiks)라는 아랍 족장의 지휘를 받으며 종족 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진다. 오늘날, 예멘에서 살고 있는 예멘계 아랍인들 대다수는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요새 같은 촌락에서 산다. 집마다 사방으로 난 창문이 있으며 마을 바깥을 향하도록 짓는다. 마을을 통과하는 사람이 화물은 엄격하게 통제받는다. 개인 가옥에는 정성스럽게 치장을 하고, 지붕이 납작한 집들을 "마을가옥(town houses)"이라 부른다. 일종의 예술적인 멋을 내기 위해 창문 주변에는 석회를 바르고

벽들로 둘러싸인다. 방에는 대개 카페트를 깔고 집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 신발을 놓아두어야 한다. 벽에는 침대와 소파를 갖다 붙여서 앉아 기댈 수 있게 한다. 응접실과 부엌은 제일 위층에 자리하며, 납작한 지붕에는 여자들이 빨래를 널기 위해 사용한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약 5%에 달하는 소수의 예멘계 아랍인들의 생활양식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회관습과 전통이 아직도 많이들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직업과 생활조건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사회생활은 아랍인들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그들은 마루에 앉아서 손잡이 없는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매일 커피 타임을 함께 갖는 것을 좋아한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삶은 고기나 닭고기를 넣은 수프와 메밀빵이다. 이슬람 교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랍의 구별된 계급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이 입는 의복은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것들 중 하나다. 예멘계의 부족민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구별된 옷을 입으며, 따라서 쉽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여자들은 마을과 집에서 베일을 쓰며, 남자 아이들은 머리장식을 바꾸고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비로소 남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멘계 아랍인들의 사회는 남계 혈통으로서, 유산은 남자를 통해서 상속된다. 아이들은 가족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능력으로써 자를 평가한다. 무슬림은 4명의 아내까지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 예멘계 아랍인들의 결혼은 일부일처제다. 과거에 모든 결혼은 부모가 결정해서 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늘고 있다. 소녀들은 9세의 나이가 되면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 최근에, 예멘의 많은 유목민들은 산악마을에 정착했으며 현재 곡물과 야채, 커피, 멜론, 대추, 망고, 석류 등을 재배한다. 우유와 달걀을 얻기 위해 가축도 기른다.

신앙 예멘계 아랍인들 거의 모두가 무슬림이고, 따라서 이슬람이 그들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슬람 시아와 전통의 일파인 자디스 분파는 광신적인 형태를 가진다. 자디스파 대부분은 전사들로서 모든 전쟁은 "지하드"(Jihad, 이교도를 대적하여 벌이는 무슬림들의 거룩한 전쟁)의 표현인 것으로 인식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무슬림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현재 예멘에는 성도들이 5,000명도 채 안된다. 많은 국가에서 제한조치가 행해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복음화의 노력은 도전적인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프리카서 선교사를 고난 잇달아

아프리카 중서부 니제르에서 무장 괴한에 납치된 미국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는 국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YWAM)과 협력하며 활동해온 25년차 선교사 제프리 우드크(사진)씨라고 YWAM이 밝혔다.



17일 YWAM에 따르면 우드크 선교사는 지난 14일 수도 니아메 북동쪽 마을인 아발락에서 총을 든 괴한에 납치됐다. 미국인 선교사가 니제르에서 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피랍 직후 인근 국가인 말리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드크 선교사는 1992년부터 니제르에 거주하며 현지 NGO인 JEMED라는 단체에서 YWAM과 협력하면서 교육과 보건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25년간 니제르 미전도종족 속에 들어가 구호활동 등을 해왔고 YWAM 피트 톱스 대변인이 전했다.

니제르는 남동부에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서양식 교육 금지)'의 근거지가 있어 치안이 불안정하다. 인구의 97.1%가 무슬림이며 2.5%가 토속 종교인, 0.3%가 기독교인이다.

2011년에는 2명의 프랑스인이 니아메에서 납치됐다. 그 후 구조 과정에서 숨졌고, 지난해에는 프랑스 예언자 회사인 아레바의 직원 5명이 북부 지역 광산에서 '이슬람 북아프리카 알카에다'라는 단체에게 납치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니제르와 말리, 나이지리아 일대에서는 선교사들의 납치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나이지리아 중부 코기주에서는 무장단체들이 필리스 소토르 미국 선교사를 납치해 인근 산악지대로 도주했다. 소토르 선교사는 미국 자유감리교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기독교계 학교를 세우며 사역해왔다. 괴한들은 몸값을 요구했고 소토르 선교사는 다행히 풀려났다.

지난해 1월에는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연계 무장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AQIM)'가 말리에 서 스위스 여성 선교사인 베아트릭제 스토클리씨를 납치하기도 했다. 스토클리 선교사는 두 번째로 납치됐다. 2012년에도 말리 팀북투에서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 '안사르 딘'에 피랍된 적이 있다.

'동성결혼' 반대 무어 대법원장 사실상 해임

동성결혼에 강력 반발해온 엘라베마주 로이 무어(69) 대법원장이 사실상 해임됐다.



CBS뉴스는 지난달 30일 판사와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엘라베마주 사법재판소가 이날 법관 윤리를 어긴 대법원장의 잔여 임기 직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무어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5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날 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동성결혼에 강력 반발해온 인물이다.

보수 기독교도인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이사는 동성 커플이 제기한 자녀 친권 소송에 대해 동성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주 법이 무효이며 엘라베마주에서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 판사들에게는 아예 동성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됐지만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한편, 로버트 벤틀리 엘라베마 주지사는 2019년말

로 예정된 무어의 임기를 채우 후임 대법원장을 조만간 지명할 예정이다.

올 노벨문학상 받은 밥 딜런, 30여년 전 기독교로 개종

올해 노벨문학상을 탄 '노래하는 시인' 밥 딜런(75·본명 로버트 앨런 지머맨)은 1970년대 말 기독교에 심취하기 시작해 전도사로도 활약하기 시작했다.



1941년 미국의 미네소타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0세 때부터 시를 썼다. 1959년 미네소타대에 입학한 그는 대학 내 한 커피숍에서 통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대학 3학년 때 캠퍼스를 떠난 밥 딜런은 자신의 우상인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난다. 그를 만난 밥 딜런은 그리니치빌리지 주변 클럽을 전전하며 연주활동을 했다. 영국 태생의 시인 딜런 토머스를 좋아해 밥 딜런이라는 예명을 썼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이 격화되자 밥 딜런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장'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1970년대 말, 기독교에 심취한 밥 딜런은 1979년 'Slow Train Coming'이라는 가스펠 음반을 출시해 레미상도 탔다. 1980년대 초반에는 기독교로 개종해 복음전도사로서 일종의 자기 정화를 시도했다.

2005년 '구르는 돌처럼'(Like A Rolling Stone)의 가사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When You Got Nothing, You Got Nothing to Lose)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9년 타임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기도 한 밥 딜런은 1970년대 한국 통기타 포크음악의 대표주자인 김민기, 양희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9년 데뷔 47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앨범 '크리스마스 인 더 하트'(Christmas In The Heart)를 발표했다. 이 앨범에서 딜런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얹어주고 불러주는 것처럼 순박하고 차분하게 부른 캐럴을 앨범에 담았다.

수곡목은 '히어 컴스 산타칼로스(Here Comes Santa Calus)' '윈터 윈더랜드(Winter Wonderland)' '더 퍼스트 노엘(The First Noel)' '오 리틀 타운 오브 베헤렘(O' Little Town Of Bethlehem)' 등 15곡이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50개주 순회 기도대성회

"미국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위해 울바라 서 있어야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전도협회(BGEA)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64) 목사가 지난 13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끝으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개최한 '미국이여 결단하라(Decision America Tour) 기도집회'를 마쳤다. 그는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98) 목사의 장남이다.

집회는 지난 1월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9개월간 열렸으며 총 23만6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집회는 BGEA에서 기획한 대형집회와 달리 그레이엄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 등으로 매번 일정을 알리는 등 대대적 홍보 없이 이루어졌다. 평일에 각 주도(州都)의 청사 앞에서 기도했다는 점에서 BGEA 역사상 기념비적 집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레이엄 목사는 집회 마지막 날인 13일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직후 BGEA 홈페이지에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다.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는 영하 8도에서도 운집했고, 미주리주 제퍼슨시티에서는 폭우를

맞으며 기도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는 38도의 폭염을 견디며 기도했다"고 자신의 '목적감'을 소개했다.

이번 집회는 일종의 '찾아가는' 기도 모임이었다. 미국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다. 집회는 지난 1월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주청사 앞에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기도 모임을 연 것이 계기였다. 그레이엄 목사는 당시 50명만 모여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당일엔 2500여명이 모였고 그들은 선 채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후 미국 50개주를 돌며 집회를 갖자고 그레이엄 목사가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구독자 462만4000여명)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했다. 기도집회는 인종을 뛰어넘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점심식사 차 나왔던 직장인도 합세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을 비롯해 초등학교생들도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았다. BGEA는 기도 집회로 8000여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매번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번 집회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을 도전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됐다. '기도하라(pray)' '투표하라(vote)' '참여하라(engage)'.

프리메이슨 전서안, 대놓고 '팍' ...동성애 확산도 노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암암리에 많은 상품이나 모델 사진에 드러나고 있다.



15일 한 기독교 커뮤니티는 미국의 대표적 대안언론인 vigilantcitizen이 10월의 사진들(Symbolic Pics of the Month 10/16)로 소개한 일루미나티 사진들을 게재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서안(삼각형 안에 그린 눈), 666,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사진들 가운데 화장품 회사인 COVERGIRL이 최초로 17세 남자 아이를 COVERGIRL(COVERBOY?) 모델로 발탁했다는 소식과 함께 잡지의 커버에 올려놓은 사진도 공개했다.

COVERGIRL은 최초의 남자 모델인 James Charles가 이번 달 커버걸 잡지의 커버를 장식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남녀의 구분을 없애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일루미나티의 동성에 어젠더가 다국적 기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남녀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동성애가 잠정하는 '뒀의 때'를 만들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동성에 어젠더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 페리와 찍은 사진에서는 전서안이 박힌 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전서안을 대놓고 웃으로 입고 나오네요" "너무 노골적이네요. 저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포즈로만 생각하겠죠" "이제는 전방위적인 홍보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군요"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우려했다.

무슬림에 공격당하는 순간 몰아친 '모래폭풍'

중동 17개국에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이블포미드 이스트(bibles4mid-east) 선교회는 지난 2일 '예수님께서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선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아라비아해에 있는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슬람에서 회심한 크리스천들 24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50명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3대 이상의 차량이 따라 불터니 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날 세례를 받았던 성도 리즈완은 "우리는 침례식을 비밀로 진행했는데 무슬림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알 수 없다"며 "아마도 무슬림들은 침례식을 할 때 공격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침례식이 조금 일찍 끝나서 침례식 중에는 공격을 받지 않고 버스로 이동 중에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갑작스러운 무슬림의 공격에 당황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빨리 몰기 시작했고, 무슬림들은 빠른 속도로 버스 뒤를 쫓아왔다.

리즈완은 "우리 모두는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우리 버스 뒤에서 큰 모래 폭풍을 목격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모래 폭풍을 보고 겁을 먹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 오던 무슬림들이 모래 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모래폭풍 가운데 총 소리를 몇 번 들을 수 있었지만 무장한 무슬림들의 차량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리즈완은 "예수님은 모래 폭풍을 통해 우리를 무슬림으로부터 막아주셨다"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끝으로 돌아가는 내내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총회, 새 사무총장 구테헤스 공식 선출

유엔총회는 13일 안토니우 구테헤스(67) 전 포르투갈 총리를 9대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테헤스를 새 총장으로 추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이날 총회에서 표결 없이 박수로 통과했다.

반기문 총장의 후임인 구테헤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1992년 포르투갈 사회당 대표를 거쳐 1995-2002년 총리를 지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으로 활동했다.

한편 구테헤스 신임 총장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없애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 이번엔 '조력 자살' 추진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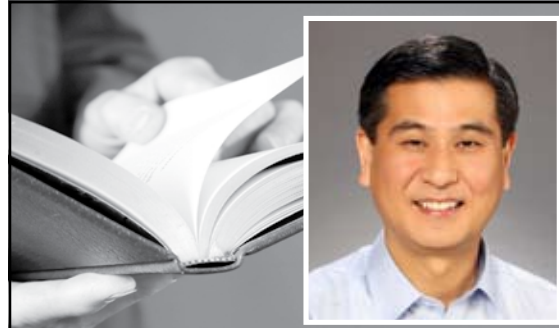
네덜란드 정부가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삶을 다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 하는 사실상 자살 방조 행위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인생을 완성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에 따라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불치병 환자가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경우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한 안락사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원한다면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디트 슈터퍼스 보건부 장관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노년층이 삶을 스스로 마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1) - 그는 누구인가?(a)

지금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구원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어둠에 놀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신다. 누가 이 중대한 일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찾아가 세우신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 독생자를 선택 내어주시는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충성스런 섬김을 통하여 전달된다.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청지기들은 쓰임을 받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춰야할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어거스틴의 참회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의 사상과 신학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보존되어왔다. 천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중세교회의 역사, 어거스틴의 신학을 거부하느냐 또는 수용하느냐?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 신학의 재발견을 통해 개혁정신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근세교회를

지나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도 어거스틴은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독보적인 인물이다.

교회를 위한 어거스틴의 주된 공헌은 그의 신학 사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가 살아온 여정과 사역자로서의 모습도 이와 버금가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과장되지 않게 진술한 태도로 글에 옮겨 세상에 알렸다. 아직도 종교서적 분야에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참회록"이다.

왜 어거스틴은 자서전을 기록하였을까? 과연 그가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다. 그가 "참회록"을 저술을 시작한 것은 43세였으며, 3년 후에 완성하였다.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청년의 패기 또는 젊은이의 미숙함이 아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나이에,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책에 기록했다.

"참회록"에 드러난 어거스틴의 삶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유사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의 모습에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결코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을 받을만한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복하여 고백한다.

"참회록"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잘 정리하여 기록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심각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기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에서 비취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임을 진술하게 고백

한다. 굳이 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만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개인적인 죄를 스스로 폭로한다. 그의 참회는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인물이란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그도 바울처럼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어거스틴의 고백과 찬양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전체 13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 즉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볼 (1-9), 현재의 상태(10), 그리고 창세기 서론의 명성을 통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진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에서, 1권부터 4권까지 자신의 수치스런 과거를 자세하게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있다. 1권에는, 유아 시절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부하는 일보다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데 관심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2권에는, 16세에도 아직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친구들과 함께 도둑

질을 하는 등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기록하였다. 3권에는, 17세부터 19세까지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마니교를 탐닉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백하였다. 4권에는, 19세부터 28세까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회록"은 분명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지만, 그가 이 책을 저술한 진정한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죄인을 찾아오시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참회록" 1권 가장 앞부분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

이다. 유아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자신이 영적으로 방황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1권부터 4권까지 각 장마다, 자신이 과거의 악한 삶을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게 된 분명한 이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임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 "참회록"은 인간 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여 서술한 신앙고백서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는 것이다. 1권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어린 시절에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참 만족과 기쁨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나의 발길은 슬픔과 혼란과 실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게 풀음보다 더 달콤한 기쁨과 영광과 확신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시여! 주신 선물들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간구하오니 제게 주신 선물들을 잘 보전할 수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저를 보전하게 되고, 제게 주신 선물들이 자라 완전하게 될 것이며, 애초에 당신이 주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당신과 늘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회록, 1. 31).

covenantcho@yahoo.com

사도바울과 유사... 신학사상과 사역자로 삶의 여정이 결정적 영향력 "참회록"은 인간 죄악과 하나님 은혜를 대조해 서술한 신앙고백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과장되지 않게 진술한 태도로 글에 옮겨 세상에 알렸다. 아직도 종교서적 분야에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참회록"이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결코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을 받을만한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복하여 고백한다.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찬양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전체 13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 즉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볼 (1-9), 현재의 상태(10), 그리고 창세기 서론의 명성을 통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진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에서, 1권부터 4권까지 자신의 수치스런 과거를 자세하게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있다. 1권에는, 유아 시절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부하는 일보다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데 관심을 가졌음을 인정하였다. 2권에는, 16세에도 아직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친구들과 함께 도둑

질을 하는 등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기록하였다. 3권에는, 17세부터 19세까지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마니교를 탐닉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백하였다. 4권에는, 19세부터 28세까지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어린 시절에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참 만족과 기쁨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나의 발길은 슬픔과 혼란과 실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게 풀음보다 더 달콤한 기쁨과 영광과 확신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시여! 주신 선물들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간구하오니 제게 주신 선물들을 잘 보전할 수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저를 보전하게 되고, 제게 주신 선물들이 자라 완전하게 될 것이며, 애초에 당신이 주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당신과 늘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회록, 1. 31).

그랜드캐년이 노아홍수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이유 (1)



박창성 박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미국의 그랜드캐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계곡으로서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과 빗물이 침식한 결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난 150년 동안 과학자들이 그랜드캐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캐년의 구체적인 형성원인과 그 지역에서 일어난 지각변동, 콜로라도 강이 현재의 경로로 흐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들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오늘날의 그랜드캐년이 형성된 것은 매우 특별

수, 즉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1) 광대한 그랜드캐년에 비해서 콜로라도 강의 크기가 너무 작

평균 16km, 최대 29km나 된다. 그에 비하면 콜로라도 강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과연 평상시의 강 넓이가 100m에 불과한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흐른다고 해서, 그보다 평균적으로 160배나 큰 폭으로 파여진

만한 반면에, 아랫부분(Section B)은 폭이 좁고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급하다.

리가 그랜드캐년에서 관찰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만큼 강물이 아닌 일이 없었고, 그랜드캐년 일대가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

서 수량이 줄어들고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후퇴하는 초기에는 지구 표면 전체를 덮는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다가 (sheeted flood), 점차로 일부 높은 지면들이 물위로 드러나면서, 높은 곳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양의 홍수 물 (inland sea)이 낮은 곳을 찾아, 여러 곳에 거대한 강줄기 같은 흐름 (channelized flood)을 이루어 넓은 계곡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빗물이 모여 이미 만들어진 넓은 계곡 안으로 흘러 들어가, 작은 강을 이루어 침식하면서 또 하나의 폭이 좁은 계곡을 만들 것이다 (underfit river).

그러므로 대홍수의 침식에 의해서 넓은 계곡 Section A가 만들어졌고, 홍수가 끝난 이후, 그 아래에 빗물이 모여서 흐르기 시작한 콜로라도 강이 침식해서 만든 작은 계곡이 Section B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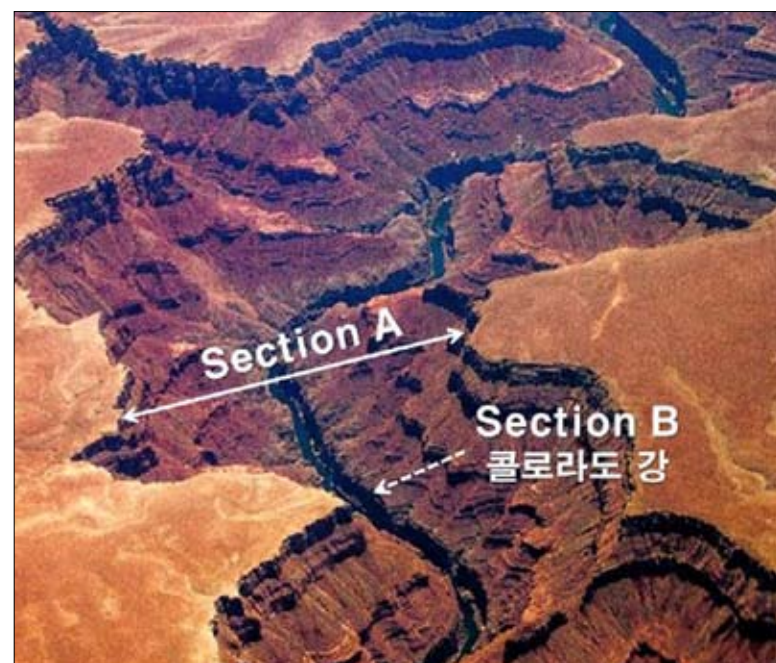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콜로라도 강이 만든 것은 그랜드캐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인 모습은 대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리

그랜드캐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대기층 위에 존재했던 질은 수증기층이 비로 쏟아져 홍수가 났다는 수증기층 이론 (Vapor Canopy Theory), 땅이 갈라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닷물이 넘쳐서 대륙을 휩쓰는 해일에 의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격변적 판구조론 (Catastrophic Plate Tectonics) 등이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격변적 판구조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산을 덮을 만큼 많은 양의 홍수 물과 대부분의 대륙 위에 두껍게 퇴적된 육지와 바다의 물질로 이루어진 지층, 그 속에서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는 생물화석, 그랜드캐년을 비롯한 격변적인 침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형 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rk@wcmweb.org



독특한 계곡 형태는 규모와 내용이 다른 침식작용에 의해 각각 형성 그랜드캐년 일부만 콜로라도강이 만들고 전체적 모습은 대홍수 때문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그 특별한 과정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현재 지구상에서 소규모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지질작용으로는 그랜드캐년과 같이 광대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계곡이 만들어질 수 없으며, 전지구적(全地球的)이고 격변적인 대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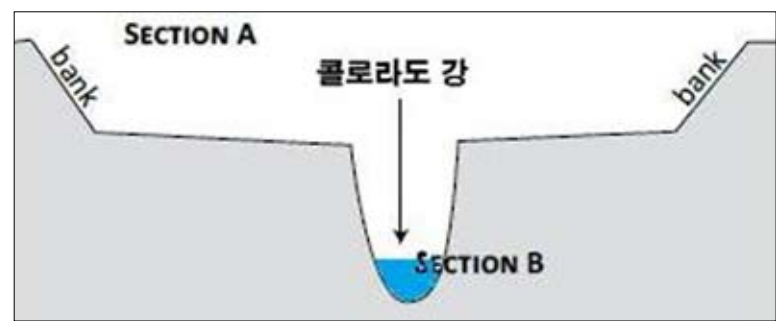
다

Figure 1. 그랜드캐년과 콜로라도 강. 지층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그랜드캐년 계곡의 광대한 규모에 비해서, 콜로라도 강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다. (사진: © 박창성)

그랜드캐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순간, 그 엄청난 크기에 감탄하게 된다. 계곡의 넓이가

그랜드캐년을 만들 수 있을까? 상식적인 경험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그랜드캐년을 단순히 깊게 파여진 거대한 계곡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까지 다른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모식적으로 표현한 단면도에서, 윗부분 (Section A)은 최대 폭이 29km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고 경사가 완



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계곡을 이루기 전, 초기에는 빗물이 많이 모여 흘러갈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과거에는 현재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랜드캐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닷물이 넘쳐서 대륙을 휩쓰는 전지구적 홍수가 일어나면, 몇 단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모두 물에 잠기게 되지만, 후반기에는 홍수 물이 다시 바다로 후퇴하면

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계곡을 이루기 전, 초기에는 빗물이 많이 모여 흘러갈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과거에는 현재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랜드캐년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닷물이 넘쳐서 대륙을 휩쓰는 전지구적 홍수가 일어나면, 몇 단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모두 물에 잠기게 되지만, 후반기에는 홍수 물이 다시 바다로 후퇴하면

리더십 코멘터리 (2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커뮤니케이션의 불변의 법칙

외모와 스펙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의 인생은 외모와 스펙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당시 미국 정계의 베테랑 정치인들은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인 워렌 하딩을 만나보고 한눈에 압도당했다.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다. 당시 35세였던 하딩은 젊고 큰 키에 당당한 체격 그리고 그리스 조각처럼 잘 생긴 외모를 소유했고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의 목소리도 우렁차고 파스한 사람의 기운이 감동했다. 모두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를 워싱턴 정가로 추천했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를 총명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외모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 작용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다.

하딩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만큼 비참한 소통의 능력을 보였다. 그는 문란한 사생활과 포커와 술, 골프와 같은 잡기에 심취해 있었다. 중요한 국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계를 렸고 무기력했다. 국민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2년 만에 돌연사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아무도 그가 그런 비참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견하지 못했다.

소통하면 죽던 사람도 일어난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집의 창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대강 짐작할 수 있듯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게 된다. 교회와 기업 그리고 사회 속에서 리더의 말 한마디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

리더의 말을 들어보면 가치관과 철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믿음과 능력이 있는 리더인지, 구원의 확

신을 가진 리더인지, 하늘의 은혜를 받은 리더인지 그 사람의 말과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다. 리더의 위치에 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리더이다. 그런데 막상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 리더가 좋은 말을 시작으로 소통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 그러나 리더의 좋지 못한 말과 불통은 가슴에 비수를 찌르듯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며, 절망하게 만든다.

교회와 조직의 죽고 사는 것이 리더의 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 믿

우리 사회는 듣는 말이 없는 사회이다. 판단과 비판만이 난무하고 각자가 자기조건대로 자기 말만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살벌하기까지 하고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비방과 헐뜯기가 이어진다. 그러나 동조만 해주어도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얻으며 자기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황금법칙

말이란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이다.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칭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말이란 하는 말과 듣는 말로 구분할 수 있다. 말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는 말이 없이 하는 하는 말만 많은 사람은 말쟁이가 되고 만다.

그러나, 판단하며 듣지 마라. 누구와 다루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이것은 성장과정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는가를 따지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이다. 판단하는 리더는 모든 사람과 단절된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닫

나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더는 하는 말이 듣는 말보다 많으면 안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많이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여, 세상 신음소리를 들어라. 리더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고통의 소리, 고독의 소리 특별한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는 목회자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많은 말을 쏟아내는 말쟁이 리더가 아니라 소리 없는 신음 소리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라

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언어 습관이 강한 곳에서 살아 온 사람, 그리고 어릴적 큰 소리를 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습관적으로 언어가 강하고 드세다. 이런 사람과 교회나 직장에서 같이 말대꾸하고 따지면 싸움이 나기 쉽다. 침묵해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더 커지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의 화를 잠재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나 리더가 그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 변화시켜

동조만 해줘도 엄청난 에너지 얻으며 마음문 열어

판단 말라, 재촉 말라, 자기말만 말라, 세상 신음 들어라

음이 담긴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리더로서 올바른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듣는 말이 없는 사회

리더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듣는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속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 문을 여는 과정은 상대가 말을 할 때 그를 자연스럽게 우호적으로 쳐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훑어보는 것은 쳐다보는 사람을 공격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개를 약간 끄덕거리고 그 사람의 말에 간략하게 동조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말하는 상대방에게 마음 문을 열고 편하게 말하도록 만들고 에너지를 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리더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다.

판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리더는 판단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리더여, 재촉하며 듣지 마라.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 리더가 있다. 특히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일 때 더욱 그렇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부모나 말하도록 하는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른이 말할 땐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현실속의 리더는 말을 못하게 하고 억박지르는 가운데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교회는 대화가 단절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막히고 서로 불신하게 되었다. 결국 적대감과 불쾌감만 남게 되는 것이다. 리더는 상대방이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

리더여, 자기 말만 하지 마라. 상대의 말을 잘라버리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리더가 있다.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귀가 들,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말을 하는 말보다 2배

사람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 하는 대로 잘 받아주는 것이다.

또한 잔소리가 많은 사람도 그 잔소리를 들어 줄 때 그 버릇을 고치게 된다.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잘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잔소리는 작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진다. 이는 듣는 말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있기 때문이다.

말은 씨앗과 비슷하다. 리더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낳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뜻을 열매를 맺는다. 리더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어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나이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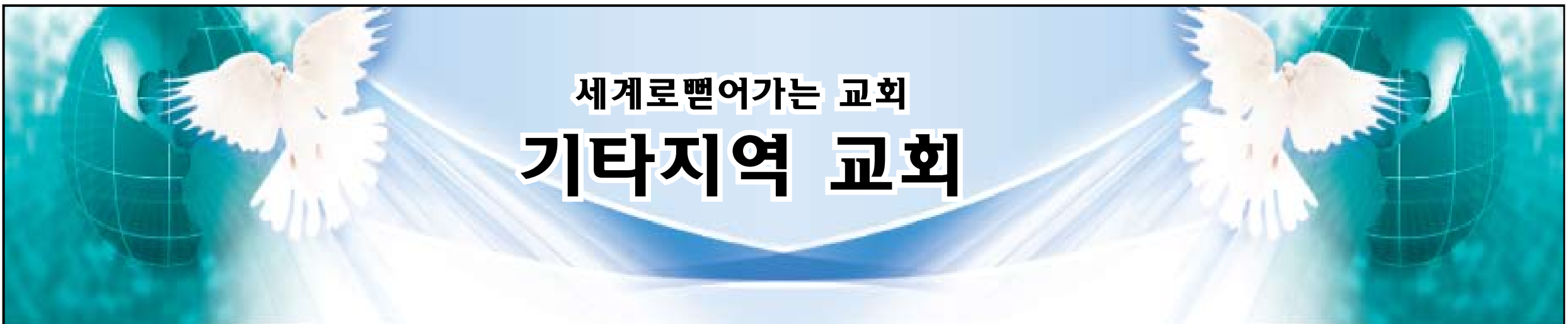
지난 월요일은 내 생일이였다. 때마침 인가단체가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주간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인가단체 팀을 맞는 준비로 바쁜 날이었다. 미리 아이들과 생일 저녁도 먹었고 기도모임 친구들이 사준 저녁도 잘 먹었지만 오후 강의시간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생일 케익을 들고 나타난 학생들이 그 다음 날 강의시간에도 케익을 들고 나타났다. 생일이 지난 이틀 후에도 졸업생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는 또 케익을 준비해주는 바람에 학생들이 마련한 생일 케익 토티를 세 번이나 불어서 올리는 한겨레에 세상을 흑 더 먹은 것 같다. 따뜻하게 마음 써주는 제자들이 고맙다. 어린이들은 생일잔치를 손꼽아 기다리지만 이제 생일이 돌아오면 늙어가는 나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내일이면 환갑이라는 생각을 하니 옛날에 "환갑노인"이라고 하던 생각이 나서 아직도 철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주간이었다.

이번 학기 강의의 과목에서 텍스트북으로 쓰는 책 중 한권에는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있다. 학생들의 대답 중에 자주 나오는 말은 "고집 세지 않은 노인"이다. 그 말은 젊은 사람들 눈에 비치는 노인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 경험이 많고 또 그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데서 나오는 고집은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환영받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카톨릭의 카멜라이트 분파에서 평신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입학자 중 하나도 나이가 오십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오십이 넘는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항상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막상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가보다. 나도 고집 센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노인이 되어서 늘 반만 하려고 하고 자신만 행한다면 많은 세월을 살아온 나이가 무색할 것 같다. 요즘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더 배울 일이 많다. 어느 곳에 가나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측에 속하기 때문이다. 밤을 같이 먹어도 주로 밤을 사게 되는 나이고, 힘든 일을 겪는 주변의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더 자주 나누어야 하는 나이다. 나를 돌아보면 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을 조금 더 앞서 살았다는 것으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다가가기 편한 사람, 언제나 힘든 일이 있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생의 주기를 말하면서 노인이 되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정리되는 통렬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실망하는 삶을 산다고 말했다.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노년기를 보내든지 삶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한 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이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이제는 입가에도 생기기 시작한다. 사진 찍기 싫어하는 나이다.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온 세월들을 감사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이 싫지만은 않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 안에 곱게 놓고 싶다.

lpyun@apu.edu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종교평화(영):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아 열 배: 오후 1:45 주, 유년: 유년: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종교평화(영):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주, 유년: 유년: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전 11:1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c.org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2:00 원년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토요칼럼

행복운동가(幸福運動家)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오늘 처음 행복운동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만과 불평이 난무하는 불확실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되도록 하는 것이 행복운동가의 역할이라고 했다. 세상은 다 나쁜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닌 어느 정도의 선(善)과 악(惡)이 공존한다.

아다니는 신기한 곤충이라는 것이다. 체구와 비교하면 천문학적 거리를 날아다니는 셈이다.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날 수 없는 신체구조로 되어 있다.

지 꿀을 모으겠다는(모아야한다는) 일념! 그것이 호박벌이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도록 하는 동기와 날 수 없음에도 나는 전부라는 것이다.

세상은 좋게 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칙칙한 까닭이다.

오직 꿀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구조가 날 수 없다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다보니 하루에 200km를 이동하는 호박벌처럼 이 세상의 가능여부를 떠나 오로지 행복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일하는 행복운동가는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

천명(盡人事待天命)만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도 아니며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행복운동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힘일 것이다.

장애물이란 목표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헨리 포드의 말이 새삼 행복운동가의 열심에 박수를 더하게 된다.

hanmac@cmi153.org



백운영 목사(왼쪽)가 이용걸 목사에게 추대패를 전하고 있다.

이용걸 원로목사 추대 및 백운영 담임목사 위임예배

설립 35주년을 맞은 필라 영생장로교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이용걸 원로목사 추대 및 백운영 2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백 목사는 위임사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할 것 △다음세대와 미래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생교회는 지난 1월 공동의회를 열고 백운영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결정할 바 있다.

1부 예배 후 열린 2부 위임식은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노회 노회장 최해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위임목사와 교우들의 서약 후 백운영 목사의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공포에 이어 김홍운 목사(증경 노회장)가 위임목사에게 권면을 통해 "전임자, 교인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부탁했다.

영상을 통해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본지 발행인)와 유재일 목사(KAPC 부총회장)가 축사를 전했으며, 이용걸 목사의 지난 35년 목회사역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됐다.

백 목사는 위임사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할 것 △다음세대와 미래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필그림교회 교인 97% 교단탈퇴 찬성

PCUSA 동부한미노회 파송 행정전권위원회 주관 공동회의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10월 16일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1,178표 유효표 중 반대 37표, 찬성 1141표로 교단 관계해소(탈퇴)를 통과시켰다.

의 결과(98%)와 비슷한 97%의 찬성을 얻었다.

현재 필그림교회가 속해있는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통과시킨 교단관계 해소 정책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회의는 노회에서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직접 교인들을 교육한 후 주관한 것으로 지난 해 11월 교회주관으로 열린 공동회의

남은 과정은 노회가 파송한 행정

전권위원회가 노회재산인 교회재산에 대한 계획,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려해 방안을 노회에 추천하게 되고 노회석상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탈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노회와 필그림교회는 2012년 교단탈퇴 의사를 밝힌 후 진행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12월 초에 열리는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에서 관련 안건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27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장 정기태 목사, "최선 다하겠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27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총동문회(회장 허윤준 목사) 제 27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오후 7시 산수감산2 연회장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정기태 목사는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기초위에서 임기동안 동문회가 자리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회장 정기태 목사 △부회장 이종태 목사, 이경남 전도사, 김은숙 전도사, 김창열 목사, 장숙희 목사.

1부 예배는 정기태 목사 인도로, 기도 이경남 전도사, 성경봉독 김은숙 전도사, 설교 허윤준 목사, 광고 이종태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GMU총장 취임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GMU 2대 최규남 총장 취임감사예배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김광신 박사) 최규남 2대 총장 취임 감사예배가 17일 오후 5시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라클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장 김현완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구본철 목사(본교 이사)가 대표기도를, 신승철 목사(본교 이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GMU 재학생 교수 찬양대(지휘 윤대중 박사)가 찬양했다.

GMU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교우

이어 총장 김광신 목사가 '선교는 왜 해야 하나?'(행6: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임미하는 김광신 목사에게 공로패를 그리고 취임하는 최규남 박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2부 취임식은 최규남 신임총장이 취임사,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축사, 송정명 박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과 이승현 박사(ITS 총장)가 축사했으며, 예장국제총회 총회장 이서 목사가 축도했다.

3부는 밴킷과 GMU홍보동영상 상영, 그리고 특송으로 이어졌다.

GMU 2대 총장 최규남 박사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이학석사, 그리고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선교학박사(D.Miss.) 학위를 취득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올 때, 1년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 등등.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의 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음을 말한다.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거부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다르다. 성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층과 계급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구별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통로가 된다. 예배인도자

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 그 결말이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교회의 기초위에 몰락의 위기가운데 회개할 일들만 쌓여가게 될 것 분명하다.

육신의 아버지가 유익을 공급하듯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양식을 공급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의 믿음의 삶에 지극히 성실하였던 분들의 신앙은 이와 같았다.

있고 이것을 온전히 좇을 때 교회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영적 아버지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설득시키는 아버지는 너무나 불행하지 않은가? 그러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고 순복되어야 할 난제중의 난제가 바로 주의 종의 권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 말세의 시대에 사단은 인생으로

하여금, 마음 가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라고 역사한다. 태생적 질서에 의해 규정된 어른에 대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말씀에 대해,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못난 것이며 모자라는 것이고, 마음껏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비참하게 하셔서 어렵고 고통스런 삶의 여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

스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불순종하는 본성에서 온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세력의 문제인 것이다.

삼속에서,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 땅에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복된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힘써 영적전투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예민한 감각 속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davidnjon@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고 이선일 목사 환송예배

고 이선일 목사 환송예배가 20일 오후 7시30분 중앙장의사에서 열렸다. 지병으로 투병 중이던 고 이선일 목사는 지난 10월 14일 정오가 지나 소천했다. 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신석환 목사를 위원장으로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발인예배는 21일 오전 10시, 하관예배는 정오이며 장지는 파인론 메모리얼 파크.

담임목사 청빙

뉴욕총신교회(RCA 소속)가 2대 담임 김해택 목사 은퇴로 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M.Div. 이상), 목사안수 후 7년 이상 전임 목회경력, 이중언어 가능, 미국내 목회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추천서(목회자 포함 3인), 본인 및 가족소개서(목회철학 및 비전, 본인과 사모 신앙간증문 각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목사안수 증명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편(원고, 동영상파일 또는 웹주소), 현재 사역하는 교회 최근 4주간 주보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12월 3일.

▲문의: choongsynchurch@gmail.com

제7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 7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11월 6일(주) 오후 5시 동 교회에서 열린다. 출연진은 복음성가가수 세라정, 유혜정, 국악선교무용단 Seven Heaven, 소프라노 페이스김, 뉴저지초대교회 현악3중주팀, 러커스 아카펠라중창단, G.C.C 프레이즈밴드, 찬양교회 EM 프레이즈밴드, 차이니스프레이즈밴드, 낸시민고 가스펠밴드, B.G.G 댄스미니스트리, 갓스이미지 등.

▲문의: (732)213-5856(디렉터 이창호 집사)

유스 리더십 세미나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14회 유스 리더십 세미나가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 12일,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뉴저지 오피스에서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8-12학년으로 참가비는 200달러.

▲문의: (201)242-4422

뉴욕한민교회 가을맞이 말씀부흥사경회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 가을맞이 말씀부흥사경회가 10월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행 5:42)라는 주제로 열린다. 금요일 저녁 8시20분, 토요일 오후 8시, 주일 오전 9시, 11시이며 강사는 이병찬 목사(위스콘신 라이프크리교회 담임).

▲문의: (718)428-9191

샬롯장로교회 가을 부흥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가을 부흥회가 10월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장영출 목사.

▲문의:

뉴욕갯세마네교회 추계 부흥성회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 추계 부흥성회가 27일(목)부터 30일(주)까지 목, 금, 토요일은 저녁 8시, 새벽 5시, 주일은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강사는 이용길 윌로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문의: (516)520-2004, (917)693-2763

뉴저지 성도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가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갖는다. 11월 6일(주) 오후 5시이며 임직자는 △장로: 이인재, 진용운 △안수집사: 이승민 △권사: 이미정, 박미화, 황영숙, 최혜실.

▲문의: (201)342-9194, 981-0009



장학금 수여자와 뉴욕목사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10명에 5백불씩 총5천불 지급 뉴욕목사회 44회기 장학금 시상식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11일 저녁 6시30분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44회기 장학금 시상식을 가졌다. 총 10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총 5천 달러를 수여했다. 시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허윤준 총무 인도로 기도 김상태 부회장, 설교 이광희 목사, 광고 장현숙 서기,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광희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잠10:9)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태어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예로 들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환 회장은 "지금까지 주로 대학생 위주로 수여한 장학금을 이

번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주게 됐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생 명단 및 학교는 다음과 같다. 나 영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김찬송 (Francis Lewis HS), 정요한 (Hauppauge HS), 임지은 (Townsend Harris HS), 정다영 (M.S. 216), 정예훈(Aviation HS), 이가은(I.S. 34), 임재윤(Bell Academy), 권오창(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최지은 (M.S. 216).

(유원정 기자)

“기대되는 교협, 돕는 교협” ...회장후보

뉴욕교협 제43회기 정부회장 후보자 언론토론회

부회장 후보들 ‘교협건물부채 해결’ ‘종교개혁지 순방’ 등 공약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 제 43회기 정, 부회장 후보자들을 위한 언론 토론회를 가졌다.

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종명 회장은 “42회기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후보자들 모두 계속 공정한 선거풍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유상열 선관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먼저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가 있었다.

현 부회장인 회장 후보 김홍석 목사(뉴욕늘기배교회 담임)는 “42회기 동안 선배들이 세운 전통과 믿음으로 잘 지켜오셨으며, 매 회기마다 하는 일은 유사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

춰 첫째, 기대가 되는 교협으로 연합과 참여를 높이고 둘째, 돕는 교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결과 기호 1번이 된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는 이미 회원교회들에게 발송한 공약내용을 소개했다. 1. 뉴욕복음화, 성령화, 성시화 2. 교협과 회원교회를 적극 돕겠다 3. 교협 부채는 임기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4.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영적 대추제장으로 변화를 주겠다 5. 회원교회 화합을 위해 1.5개, 2세 교회들과 어깨동무 할 수 있도록 정



뉴욕교협 제43회기 정부회장 후보자 언론토론회를 마치고, 왼쪽부터 유상열 선관위원, 김전 부회장후보, 김홍석 회장후보, 이만호 부회장후보, 최창섭 선관위원장, 이종명 뉴욕교협회장.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2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황영송 대표, 이상호 이사장 유임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22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22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오후 7시 뉴욕수정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장 이상호 안수집사, 대표 황영송 목사 체제 연임을 결정했으며, 공석 중인 사무총장 대행으로 정인섭 전도사를 임명했다.

이사회 정기총회에는 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와 총무 박진하 목사가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최호섭 목사 인도로, 기도 장경혜 목사, 설교 황영송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송 목사는 창세기 26:12-25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이사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지난 회기를 ‘재정비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진 회무는 이상호 이사장의 사회로 박진하 목사의 개회기도 후 이사 8명 등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기 장경혜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감사 김영철 목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회계 최호섭 목사는 지

난 회기 결산으로 72,196달러 수입과 66,992달러 지출을 보고했다. 최 목사는 특히 사기를 당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복사가 문제와 사례비 세금 미납 등 현안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프로그램 기획위원장 정인섭 전도사는 성탄절 모금, 농구대회,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등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농구대회는 한인학생 뿐만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며, 할렐루야대회는 평가회를 통해 청소년센터가 부족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앞으로 청소년사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행사를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신임 사무총장 대행 정인섭 전도사는 10년 이상 할렐루야대회 등 청소년센터의 실무를 맡아 황영송 목사와 호흡을 맞추며 사역해온 실무통이다.

예산심의를 통해 수입 107,000달러, 지출 70,500달러의 새 회계 예산을 통과시켰다. 수입부문에서는 교회, 그리고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을 올려 잡았다. 또 지출에서는 풀타임 사역자 후원준비금으로 3만 달러의 지출예산을 잡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가을 체육대회 성료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연례행사인 가을 체육대회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알레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상태 목사 인도로 설교 김승희 목사, 회장인사, 광고 장현숙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다윗의 믿음”(삼상17:33-3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강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 목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

자”고 말했다. 뉴욕목사회는 푸짐한 오찬을 준비하고 많은 상품을 마련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19일 제 3차 임신행위를 가지며, 24일(월) 오전 10시30분에 기도회를 갖는다. 장소는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로 미국과 조국 그리고 교계 현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김전 목사(뉴욕대한장로교회 담임)는 “헌법에 나온 대로 회장을 잘 보필하겠다”며 “하나님이 주신 부의 축복을 나누겠다. 할렐루야대회 강사에게 후원비를 받지 않도록 하며 2세 교육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당일 “부회장 후보 김전 목사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부했다.

두 부회장 후보는 모두 ‘교협부채 해결’을 언급하고 종교개혁500주년 맞이 종교개혁지 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자들은 김전 목사에게 목우회가 사전 포석인가? 건강은 어떤가? 재정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등을 물었으며 이만호 목사에게도 교협부채 상환과 할렐루야대회의 변화, 성시화 운동 실현에 대해 질문했다.

(유원정 기자)



통일포럼을 마치고 강사들과 퀸즈장로교회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조국의 현실 잊지 말자...의지 갖고 통일준비 뉴욕통일포럼, 허문영 박사 등 5명 퀸즈장로교회서

2016년 한민족통일포럼 뉴욕통일포럼이 16일 오후 3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김성국 목사 사회로 허경화 장로 기도와 찬양대 찬양 후 김성국 목사가 “내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 37: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인류분열의 역사는 성경에서도 세상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며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한반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김 목사는 “평화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규영 원장이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 허문영 박사가 “남북통일과 교회의 역할”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규영 원장(서강대국제대학원 원장)은 동서독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독일의 경우 정치적 통일은 1년에 끝났지만 경제적 통일은 27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어떤 학자들은 2세대 즉 60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독일교회는 통일이 되면 개신교가 부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동독 내에 무신론자가 증가하고 교회는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독일 경우를 보면서 한국은 통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통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회부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한국교회 장구 단일화, 통일신학 확립을 해야 하고 통일비용은 교회가 앞장서 준비하고 사회가 따라오게 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요청했다.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는 한국의 향후 10년을 전망하며 북한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3차 세계 대전의 유력지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과 전세계 현실을 조망하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탈북민이 20-30만인데 북한선교는 한국선교사, 조선족 선교사, 해외동포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강대만만자 북한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방아막을 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영 집사 특송 후 이어진 토론에는 허양호 박사(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마인섭 부총장(성균관대)이 참여했다.

홍 박사는 “경제성을 생각지 않고 이뤄진 통독에 비해 한국은 돈 안드는 통일을 하도록 연구해야 한다”며 “후손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한국 교회는 북한에 교회설립하고, 정치적 생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 부총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지만 진전이 없다”며 “최고의 정치체제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이념과 보수/진보가 낱감들을 야기하고 있다. 승자독식제(미, 영)와 합의형 민주주의제도, 두 가지 선거형태가 있는데, 한국은 효율적이고 합의적으로 선거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운영 교수(중대대 정치국제학과)는 “지도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때마다 이슈가 되지만 진전이 없다”며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국민적 합의가 없다. 북핵문제는 통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유지가 핵심이고 미국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 대통령과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을 마치면서 김성국 목사는 “큰 위로와 소명의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평화를 도모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가을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건강한 목회자 청빙” 기원실 건강교회포럼

류우길·류태옥, ReconciliAsian 제5회 사회봉사상 수상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허성규 교수)은 ‘건강한 목회자 청빙’이란 주제로 건강교회포럼을

13일 오후 6시30분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기교회)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허정박사(UCLA 교육학) 사회로 남중성 목사(디사이플교회), 김영훈 장로(릿지크레스트 한인교회)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병주 목사는 목회자 청빙과 관련해 ‘좋은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민주적 신본주의의 정립을 주장했다.

송 목사는 “좋은 목사란 리더십이 탁월하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해태를 누리던 세월은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건강한 목회자 청빙’이란 주제로 건강교회포럼을 가졌다. 이날 사회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가져 류우길·류태옥씨와 ReconciliAsian에게 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끝이 났다. 교회성장을 돕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것은 신화일 뿐이며 신화의 시대는 끝이 났다. 어떻게 하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 언급하고 “교회와 복음, 하나님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가르침을 교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에 충실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청빙이 어려운 이유로 전임자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려는 ‘욕망’을 거론했다.

송 목사는 “전임자는 교회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식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이러한 ‘욕망’을 떨치게 포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스스로를 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청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청빙 방식으로는 △세습방식 △추천방식 △공모방식 △추천&공모 방식 등으로 거론하며, 어느 것도 완전한 청빙은 없다고 설

명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세습방식은 제외하겠다. 추천 방식은 반드시 정치적 개입이 작용하며, 서류를 통해 100프로 공모하는 교회는 본적이 없다. 또한 서류 공모는 스펙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1차는 추천을 통하지만, 2차부터는 똑같은 경쟁을 하도록 하는 추천&공모 방식을 말하고 싶다. 완전한 청빙은 없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 상을 찾아가는 청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으로 송 목사는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을 선출해, 세미나를 통해 교육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 담론과 철학적 공유가 안되면 인기 정치인을 뽑는 것처럼 된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한 후, 목회자의 색깔과 지향점을 찾아가다보면 청빙과 관련한 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열린 ‘제5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은 개인으로는 LA 지역 양로병원에서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류우길·류태옥 씨와 단체로는 국가, 사회, 가정, 개인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Sue Hur 목사 공동대표이 선정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This-Ability Orchestra) 제 1회 정기연주회가 29일(토)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갖는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을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음악재능 기부 봉사자로 구성됐다.

▲문의: (323)594-2060 박현주 전도사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2016 다민족연합기도대회(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23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자마, OC교협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나성서울코랄 제72회 정기연주회에서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나성서울코랄 제72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코랄(지휘 진정우 박사) 제 72회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일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나성서울코랄 안혜숙 단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주를 통해서 한 인사회에 문화적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연주회를 찾아오신 관객 모두에게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주회는 조셉 하이든의 ‘Missa Brevis St. Joannis de Deo, “Kleine Orgelmess”’, 한국가곡과 민요, 오케스트라 곡, 그리고 성가곡의 무대로 진행됐다. 소프라노 황혜경 씨와 테너 존리 키나 씨가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이성교제 & 데이트 폭력세미나가 드림교회에서 개최됐다

한인가정상담소 이성교제&데이트 폭력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파사데나에 있는 파사데나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이성교제&데이트 폭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블루윌드 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학부모 그룹과 자녀그

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및 건강한 이성교제에 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행복” 주제로 박완규 초청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 2016 밀알의 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6 밀알의 밤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주최로 열린 밀알의 밤 행사는 한국의 정성급 락가수 박완규 씨가 메인 게스트로 초청됐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6 밀알의 밤 행사에서 메인 게스트 박완규 씨가 시가장편 피아니스트 노유진 자매의 반주에 맞춰 찬양하고 있다

박완규 씨는 “한국에서 떠날 때 발달장애인 후원 행사에 다녀왔다. 그 당시 대한민국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과 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언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어떤 여론이 형성돼야 하는지 선진국 미국에서 알아보고 한국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밀알의 밤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 공연할 때 객석을 바라보게 됐다. 객석에 계신 분들의 표정은 장애인 사역은 특별한 게 아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란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에도 자리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4일 저녁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서 박완규 씨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른 뒤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다.

그는 “미군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자라서 그런지 LA한인타운의 느낌

은 그 당시를 생각나게 해 친근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활의 김태원 씨와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기획사에서의 힘겨웠던 시절과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 등 가족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행사 후 남가주밀알선교단 총단장이었던 목사와 ANC온누리교회 김의구 목사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박완규 씨의 꾸밈없는 모습과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는 평을 했으며 역대 밀알의 밤 게스트 중 최고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밀알수여찬양단이 출연했으며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노유진 자매의 피아노 연주, KPOP스타 출연자 유제가 자매가 찬조출연 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주최 제22회 정치인 연례 오찬이 용수산 식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미연합회 주최 제22회 정치인 연례오찬 성황

주류 정치인 및 공직자들과 한인 사회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22회 한미연합회(KAC) 주최 연례 정치인 초청 연례행사가 13일 ‘노숙자 문제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LA 등 가족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스티브강 KAC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연방 상하원과 주상하원 그리고 시의원까지 참여해 마련됐다”며 “이번 오찬행사는 정치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게 되는 대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비해 한인 정치력이 신장됐고, 한인유권자율도 올라 많은 참여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트 LA 시의원을 비롯해 하버 베세라 연방하원의원,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데이브 존스 가주 보

험국장,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폴 코레츠·미치 오페럴 LA 시의원, 마이크 김슨 가주 하원의원 등 23명의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 보좌관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을 청취하고 교류를 나눴다.

또 이날 행사에는 한인 공직자와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사무실에 중용돼 활약하고 있는 알렉산더김, 지에나(데이비드 류 시의원), 로버트 박(에리 가세티 LA시장), 제이미황(하브 웨스 LA 시의장), 안젤라윤(LA카운티 수퍼바이저 5지구), 벤 박(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 로렌스신(LA카운티 수퍼바이저 1지구), 애슐리오 LA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 커미셔너 등 한인 보좌관들도 대거 참석, 정치 분야에 진출하는 한인 젊은이들의 증가세를 반영했다.

(박준호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 교회</h2>						<h3>뉴욕갯세미나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08:30 세례기도회: 오전 05:40 금요기도회: 오후 08:30</p> <p>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ina.org</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347)502-2571, Fax. (347)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http://nyccchurch.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성령충만: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http://kcb.org</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3>뉴욕새비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후 6:00</p> <p>Tel. (917)733-7387 1917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3>뉴욕순복음인도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신)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DM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25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cchurch.org</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3>리빙스턴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빙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3: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908)771-7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3>에벤에셀선교회</h3> <p>담임목사: 최창섭</p> <p>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p>	<h3>에사랴교회</h3> <p>담임목사: 손한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DM영양예배: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신)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www.pcc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www.hwalichurch.org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새소망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왕익상</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신)예배: 오후 8:30 (1, 2, 3, 주사비나서 설교)</p> <p>Tel. (595)211-574-985 E-mail: haninrk@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신)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www.hawaii.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2016 교단 총회로 본 한국교회

⑤ ‘머나먼 꿈’ 여성 권리 신장

여성 관련 안전 모두 부결... 양성평등 ‘제자리걸음’

주요 교단 9월 총회가 마무리됐지만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여성 총대 할당제 등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여성들은 높은 벽을 재차 절감해야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제101회 정기총회에서는 여성성도들의 기대를 모았던 ‘여성총대 할당제’ 도입이 올해도 무산됐다. 총대들은 전국 66개 노회에 최소한 목사나 장로 등 여성 총대 1명씩을 파송해달라는 청원안을 부결하고 여성위원회에서 1년 더 연구토록 했다. 현재 예정통합 교단의 총대 1500명 중 여성은 1.6% 정도다. 노회마다 1명씩 파송할 경우, 4.4% 수준이 된다.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해달라는 현의안도 부결됐다. 이번 총회에는 24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했다. 여성 목사 안수가 허락된 지 20년 만인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6명씩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수다.

지난해 제65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장로·권사)안을 부결한 예정교신(총회장 배경호 목사)은 올해 신대원을 졸업한 여학생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권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도 부결시켰다. 예정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과 합신(총회장 최철용 목사) 총회에선 여성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예정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의 경우 여성 목회자가 20%에 육박한다. 하지만 여성 총대는 아직 없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의 여목회자연연합회를 총회장 직속기구인 특별위원회로 신설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그마저 부결됐다. 교단 관계자는 “여성 목회자들이 총회에 진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백석과 대신 두 교단의 통합으로 여성 목회자의 수는 많아졌지만 여성안수 역사가 짧아 남성 총대들의 정서적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⑥ 거룩한 총회를 위하여

‘성총회’ 아직 미흡해도... 비방·소송전 줄고 한층 성숙

올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는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평이 많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회개와 갱신, 자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동안 이렇듯 담담했던 총회에 대한 자성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단 총회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빠지지 않았다. 불법·금권 선거의 흑이 불거지면서 비방과 소송전도 이어졌다. 가스총을 꺼내든 이도 있었다. 올해 총회에선 이런 풍경이 많이 줄었다.

올해 티가 없진 않았다. 한 교단 총회는 총대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격투기장’으로 돌변하기도 했다. 총회장에 임장하지 못해 예배당 2층에서 참관하던 한 목회자는 “뛰어나리겠다”며 자해소동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회의 도중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총대들의 모습도 보였다. 총회장 밖은 수십명의 피켓 시위대로 둘러싸였다. 저마다 교단 내 노회 및 개교

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눈에 띈 장면은 절도와 품위를 겸비한 총대들의 모습이었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응서하는 장면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성경 말씀을 외쳤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내년에는 한층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 중심에 교단 총회와 목사·장로 총대들이 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성숙한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1년 뒤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총회의 격(格)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에 달려 있다. 매년 ‘성(聖)총회’를 강조하며 개회하는 주교단의 총회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을 향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미션라이프 박혜)

“해당국 문화 고려 창의적 발상으로”

현장선교사들의 단기선교 제안

똑같은 단기선교 패턴을 반복하지 말고 해당 국가의 문화를 고려한 창의적 발상으로 꼭 필요한 단기선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장선교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미션파트너스(대표 한철호 선교사) 산하 21세기현장선교여성위원회(위원장 한윤호 목사)는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 5개국 18명의 선교사들과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 단기선교는 국가별, 문화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야 하며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김진영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베트남교회의 파트너십을 기

초로 하는 단기선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팀과 현지인들의 참여율을 6대4로 하는 것이 황금비율”이라며 “베트남 사람들은 한번 수용하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기에 한국교회가 와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면 베트남 신자들의 가능성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일방적 수혜식보다 현지 참여형 단기선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태국 최종환 선교사는 “태국은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타종교에 대한 수용성이 강하다. 심지어 단기팀이 예수님 복장을 한 채로 퍼포먼스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현지 반응은 매

우 뜨겁다”며 “그러나 진정한 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에 일회성 행사가 아닌 현지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선교사는 이어 “태국에서는 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존경심이 매우 높다”며 “단기팀이 이 점을 간과해서 말실수를 한다면 현지인들과 관계의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매일 오후 6시엔 모든 공공장소에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역을 강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팔의 김승근 선교사는 지난해 개정 헌법 발표 이후 변화된 선교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네팔은 지금 강제 개종이 금지됐고, 개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팀은 뜻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 결과도 소개했다. 현지 신자들은 한국교회의 단기선교 활동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단기선교 기간이 네팔에서는 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수업을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단기팀들의 ‘단골 메뉴인 무연극 등과 관련해 “네팔교회 자체적으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데도 단기팀은 매년 똑같은 공연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전에 네팔교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독교대안학교 정체성 확립해야”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심포지움

“기독교대안학교는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와 확실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미 지역 기독교학교인증협회(CSI) 조엘 웨스타 대표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백석대 대학원에서 열린 기독교대안교육 ‘2016 국제심포지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와 살롬대안교육센터는 이날 ‘기독교대안교육의 성장과 나

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웨스타 대표는 “결혼문제나 성경체성 등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성경적 신념을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요즘 미국 기독교대안학교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 적극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도 기독교대안학교가 정체성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박 소장은 “입시위주 교육, 비싼 수업료로 인한 귀족학교화, 외국 유학준비학교로의 전락 등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핵심 근거는 기독교계관에 근거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임태규 두레자연고 교장은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기독교대안학교가 많아지는 것보다 기독교정체성에 대해 반성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정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했다.

또 성경의 차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발하고 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간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참석자들은 한국의 다음세대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기독교학교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소장은 “한국교회가 신앙의 대를 잇기 힘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이 땅의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독교교육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공동대표는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교사 교류, 지역 단위의 연합교사 모임, 학부모 공동체 활성화 등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건 기각결정은 잘못”

삼일교회 성명 “예정합동 총회결정에 이의 제기...”

서울 용산구 청파로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는 16일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예정합동 총회 결정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삼일교회는 성명에서 “삼일교회는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 권고했다.

삼일교회는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 성범죄 상담기구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난 지구촌에 사랑을...팔 걷은 한국교회

한국 교회가 수재를 당한 국내의 재해민 돕기에 두 팔을 걷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13일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자”고 공식 제안한 총대들의 모습이었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응서하는 장면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성경 말씀을 외쳤다.

기윤실은 “주민의 삶과 고통을 외면하고 핵무장으로 치닫는 북한 당국의 행위가 밋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아진 성금은 제3국 등을 통해 생필품 위주의 현물로 바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한기봉·단장 조현삼 목사)은 허리케인 ‘매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에 긴급구호팀을 보냈다. 구호팀은 11일(현지시간)부터 최대 피해지역인 제레미시 공항 인근의 라빈사를 마을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구호팀은 쌀(25kg) 100포와 옥수수(25kg) 100포, 티셔츠 2만장, 식용유 1000통과 여성용품, 비누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한기봉 사무국장은 이석진 목사는 이메일을 통해 “마를 주민들에게 한국 구호팀이 전달한 물품들이 피해를 입은 후 처음 받는 것들이었

다”면서 “쌀이 도착했을 때 춤을 추면서 구호팀을 맞이한 주민들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1만 달러 규모의 초기 구호 자금을 지난 10일 아이티에 전달하는 한편 인터넷에 모금 홈페이지(goo.gl/rvjzn6)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다.

김태일 기아대책 국제사업부장은 “현재 아이티에는 대통령이 없어 피해 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태풍 차바’로 이재민이 발생한 울산 지역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태화교회(양성태 목사)와 대영교회(조은 목사) 등은 태화중합시장 일대에서 지난 8일부터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식사 봉사를 펼치고 있다.

울산기독교연합회(회장 이성택 목사)와 울산사랑실천운동본부(대표회장 정근두)는 태풍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 5곳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사회봉사부(총무 오상열 목사)와 현지 교계에 따르면 충신교회와 봉계교회, 물댄동산교회, 내외교회 등 현지교회 5~6곳이 침수 피해 등을 입었다. 이 가운데 물댄동산교회가 운영 중인 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랑의집’은 순식간에 불어날 물로 시설이 완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장애인들의 거처 수리 등에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현장을 답사한 오상열 목사는 13일 “피해를 당한 교회에 대해서는 지역 노회 구호 기금을 비롯해 교단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도 요청했다.

이슬람 자본침투...대구도심서 ‘아슈라 집회’

시민단체, 할랄산업 추진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철회 요구

무분별한 이슬람 자본 유치, 할랄식품 육성, 국내 무슬림 세력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대책전국연합(대표 임재영 목사) 등 전국 88개 시민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할랄산업 성과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중동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함께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1.6배 크기의 부지 개발사업이다.

이들 단체는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면 무슬림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돼 영국 등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테러와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슬림들의 국내 거주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가 넘으면 이들은 자기

들만의 문화와 율법(샤리아)을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할랄 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할랄산업 육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대구에서는 무슬림 80여명이 검은 색 옷을 입은 채 자기의 가슴을 세계 치는 ‘아슈라’의식을 거행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아슈라는 이슬람력으로 1월 10일이라는 뜻으로 1400여 년 전 무세인 일가가 이라크 왕조에게 몰살당한 것을 기리는 행사다.

범국민구국연합과 이슬람대책전국시민단체, 대구예국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이슬람(IS) 대구 진출 과 북핵 반대 대구 시민 총결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구에는 무슬림 500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변화시키는 교회봉사활동 중요성 강조

18일 ‘한국교회 자원봉사 콘퍼런스’ 개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셋째날인 18일 2016다아코니아코리아조직위원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에서 한국교회 자원봉사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승훈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교회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체계 거버넌스 모색’ 발표에서 “한국사회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의 심화로 공동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지닌 사회봉사와 연대활동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처할 것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바라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이처럼 현대인들은 주변 사람과 교류가

없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치의 다양성, 다원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개인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협력해서 사회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체의 위기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현대사회의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 어떻게 공공성을 지향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 치유책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보조적 역할로 자원봉사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학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미국 같은 경우 시민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언급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선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교여연, 여성총대 할당제 촉구

양성평등 위해 한국교회에 요청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교여연·회장 김가는 장로)는 제499회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2016 각 교단총회의 여성총대 현황’을 발표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총대 할당제 등에 힘써 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교여연이 17일 공개한 여성총대 현황을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통합을 비롯해 6개 교단의 여성총대는 모두 291명으로, 전체 총대 3995명의 7.3%에 불과했다. 예정통합 여성총대는 1.7%,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9.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0.7%로 집계됐다. 여성총대가 1명도 없는 예정합동, 예

장고신, 예정합신, 예정대신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총회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 등이 줄줄이 부결되면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가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현의안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현의안’과 ‘성유리 강령(법과 제도) 신설’안만 통과됐다. 이로써 가장 소속 여교역자들은 사역 중 출산 및 육아휴직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가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성유리 강령’과 관련해 법과 제도의 초안을 만들고 헌법위원회의 검토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된다.

미션스쿨 최초 장로동문총회 ‘승장회’ 결성

미션스쿨 최초로 장로 동문들의 총회가 결성됐다. 승실장로연합회(승장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로 승실대 환경기계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안재국(남서울중앙교회)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승장회는 그동안 각 교단과 교회 등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승실대 출신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창립한 단체다. 2014년 승복회(승실대 동문 목회자 모임) 정기총회에서 승장회 총회 준비가 정식으로 공포됐고 지난해 9월 구체적 방안을 만든 뒤 매월 준비 모임을 가졌다.

승장회는 영성훈련 및 선교활동

을 넘어 선교, 사회통합, 봉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120여명의 회원이 기도하며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승장회 부회장은 김광수(기독일보 사장) 김상남(인천제일교회) 이종근(영락교회) 박옥식(신촌성결교회) 최준권(수원성결교회) 장로 등 5명이 선출됐다.

안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승실대가 기독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승장회는 승복회와 연합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통일을 위한 사역에도 적극 나서겠다. 승장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도소 선교칼럼 (7)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치유

저는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로 인해 교도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선교 사역지에서 제게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한가지 여쭙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지역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마약하는 한 재소자를 만났습니다. 본인은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개 교도소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재소자들을 돕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약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교도소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부르심을 이해하기 전에는 유혹을 이기기 힘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자신의 힘으로만 마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열망을 반드시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며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약이 고통을 잊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잠시 아픔을 잊게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치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로서 치유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2. 회개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나에겐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3. 절절한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생활에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4.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는 이해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5. 마음을 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내며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은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약중독은 자신에 집중된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도 모르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며 말기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삶의 태도의 전환은 우리를 그러한 유혹에서 나오도

록 도와줍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위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에 낙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치유, 평안,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마약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약을 끊고 싶은 욕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가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저는 제가 쓴 목사집 "예수님과 걷는 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책은 세상을 사랑하여 헛된 것만을 추구하던 저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섬기고 사랑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마약을 끊으려고 사람들과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치유 프로그램 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좋아진 것 같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더 이상 그들을 제재하는 것이 없으며 뚜렷한 삶의 목표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 쏟기 시작하면, 다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 받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 조지는 마약 중독에 빠져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기로 결정한 후 마약에서 해방이 되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삶에 변화가 되고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저의 조정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계속 알리고 재소자들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삶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결단으로 마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필리핀

필리핀 semmjoa교회와 센터

지금 이곳 필리핀은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밤과 낮으로 연속 비가 오기도하고 때로는 낮에는 잠시 햇빛이 나다가도 밤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빨래가 쌓이고 습기가 많아 여간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수업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비로 인해 주일학교 참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는 거의 대부분 일용직을 하며 수입을 올려야 하는 아버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버는 수입은 최소 250페소에서 400페소 내에서 수입을 올리는데 이 돈을 벌기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으로 150페소에서 250페소가 들어갑니다. 결국 하루 벌어들이는 돈은 100-150페소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돈으로 한 끼 쌀을 사는데 80페소를 쓰고 나면 반찬거리가 사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지금의 형편을 살펴보고 4개월 이상 일거리가 없이 지낸 가족부터 1달 이상 일거리가 없이 지내기에 먹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것, 기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움 가정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호기트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한 끼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센터와 예배당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방해가 많네요. 그 방해란 설계를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아직 내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건축한다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만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일하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선이 되고 주가 되어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더 소망합니다.

8-9월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만 짓고 넘어지기만 하지만 여전히 일으켜 세우고 앞서 행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어찌보아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시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베드로전서 1장13절).

선교지 이야기-남편을 버리세요.

필리핀 우리 선교사역지의 문제 중 하나가 가정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고향에서 도시로 이사 와서 서로 만나서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삽니다. 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후원해 줄 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충족이 안되고 그 결과 서로



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아줌마가 자기가 남편이 4명이나 되는데 지금의 남편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자랑하며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각자의 남편을 자기의 경제적인 후원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든 도움을 청하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은 아무리 돈을 번다해도 일당 7, 8천원으로는 먹기도 어렵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라서 언제나 더 남편을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버리라. 붙잡지 마라. 버리되 주님께 버리라고 합시다. 주님께 버리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 주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또 분리되는 아픔을 면할 수 없다 합니다. 다만 저들이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저도 이런 고백을 해 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기자 그 길만이 살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보내는 메시지

제가 필리핀에 온지가 8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 기억되는 하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의 나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내가 있음은 은혜입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한 번은 납치되어 약물중독으로 한 번은 칼을 들고 나와 죽인다 한 사람과의 실갱이로 한 번은 심한 고열로 1주일간 사경을 헤매었지만 여기 나 있음은 전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온전한 영화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나 가진 것 없다고 주눅 들 수 없고 약하다고 위축될 수 없



고 모른다고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가 언제나 넘치고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8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다 사역할지는 모르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기에 넉 언제나 회망이다. 언제나 승리하며 축복이다. 언제나 영광을 보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제목

1. 건강한 선교사역을 위해-선교사, 교회, 성도, 주님들의 건강위해
2. 예배당 및 센터 건축을 위해-설계, 시공, 후원모금
3. 각 기관 사역의 성장과 열매-KINDER BIBLE SCHOOL, 주일학교(유, 초등부), HIGH SCHOOL, 어머니기도회의 성장과 열매
4. 10월의 행사를 위해-영화보기, 튜토리얼수업, 급식사역, 기타
5. 새로운 스태프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서

김적용, 박영란 선교사
saemjoa@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2:30(영년) 새벽기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 대부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Irvin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다녀오실때: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ccsca</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월요일예배: 오후 11:20 영양예배(영-토): 오후 11:20 영양예배(영-토): 오후 11:2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jpc.org</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영양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youngm.com</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p> <p>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228 (전화 녹음),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광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영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idel@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orranc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월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영양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후 11:00</p> <p>www.gracem.com Tel: (714)446-628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새벽기도: 오전 7:20(금)</p> <p>Tel: (310)325-5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중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846-9259 Fax: (714)8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corneston.com Tel: (310)330-4040(CH), Fax: (310)3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년,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영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gc.org Tel: 310-370-3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살롬의 교육학(8)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서피크 대학교 교수)

살롬 교육모델의 네 가지 질문

살롬의 교육학 모형

Shalom(shalom)이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화평과 기쁨의 관계를 말한다. 살롬은 그러기에 평화와 평강이요, 정의요, 질서와 조화를 의미한다. 살롬의 교육학은 바로 그런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있고 살았던 우리의 고유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교육! 필자는 이런 살롬의 교육이념을 일찌기 C. S. Lewis가 지었던 나니아연대기(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슬란은 예수님을, 마녀는 사탄을 상징한다. 마녀는 강압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 자기 집안 뜰로 끌고 와 주술로 동상을 만들어 버렸다. 아슬란이 에드몬드 대신에 죽게 되지만 부활한 뒤, 수잔과 루시를 등에 태우고 간 곳이 바로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 마녀의 집 안뜰이었다. 거기에는 일전에 루시를 잘 대 해주었던 Mr. Tumnus의 동상도 있었다. 그저 죽은 채 서 있는 동상! 그런데 아슬란이 각 동상들에게 숨을 불어 넣자마자 죽은 동상들이 깨어나게 된다. 이 장면을 C. S. Lewis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아슬란은 모든 동상들에게 생명이 되 돌아오게 하였다. 마녀의 인물은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동물원이 된 것 같았다. 모든 산 생물들이 춤을 추며 아슬란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죽은 듯이 하얗게 가득 차 있던 동상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의 각종 생명체로 뒤범벅이 되어 기쁨의 도가니로 변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읽고 바로 살롬의 교육학을 생각했다. 본래 존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죄성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기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살롬의 사상과 이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교육학적 접근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필자는 가능한 것으로 믿으며 또 이것이 최후의 물러설 수 없는 교육의 보루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점에서 살롬을 향한 교육은 바로 치유 지향적이고 화해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살롬의 교육학 요소

최근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Parker

Palmer가 쓴 “가르치는 용기”(The courage to teach)라는 책은 몇 가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교육의 문제를 철학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서술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기성실성과 자기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가지 질문이란, 왜 가르치는가(교육의 목적), 무엇을 가르치는가(교육의

어내는 유효한 방법이다. 이전에 필자는 Albert Wolters의 두 가지 개념, 구조(Structure 하나님의 창조 의 원리/피조물에 내재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 목적)와 방향(Direction, 하나님 중심의 방향인가 사람의 중심인가)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비록 죄가 모든 피조세계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구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방향

△교육목적-화해와 회복 △교육내용-상황화 △교육방법-탐구중심, 발견주의, 문제해결 △교사론-선교적 리더...peacemaker, essential outsider, direction guide



의 문제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라 설명한 적이 있다. 결국 죄가 침투한 이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돌려 창조질서를 회복, 구현하는 방향설정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살롬의 교육은 그 목적이 화해와 회복에 있는 것이다.

내용), 어떻게 가르치는가(교육의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교사론)라는 질문이다. 살롬 교육학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질문을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앞으로 향후 10회에 걸쳐서 이런 살롬 교육학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네 가지 질문의 개요와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한다.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를 추구하는데 있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지적, 사회적, 영적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에 교육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변화를 이룰

둘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어서 하는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회질서 및 기관들도 창조하셨다. 문화를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은 문화적 수단을 통하여 교육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이다. 예수님 역시 유대사람으로 태어나 유대인들을 교육시켰을 때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그들의 생활양식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큰 효과가 있게 되었다. 씨 뿌리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 로마화폐를 통한 가르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들에 피는 백화화, 공중에 나는 새...이 모든 것들이 당시 유대사회와 관계 있는 주제요, 사회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이 쉽게 학습자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셨다. 필자가 보기에 효과적인 교사에게 필히 강조되는 능력이 바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

리는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뛰어난 교육자라고 각인되어 왔다. 천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쉽게 가르치되 정곡을 쫓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라!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교육내용을 학습자가 잘 알도록 그들의 상황에서 전개하셨기 때문이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상황화 교육(contextualized education)”이라고 부른다.

교육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와 문화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그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되어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 교회학교(성인이든, 아이들이든)에서는 미국 교회에서 쓰는 교재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쓰는 교재를 대부분 이용한다. 아이들이 이러한 교재 내용에 쉽게 몰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민교회의 상황은 한국교회 혹은 미국교회의 상황과는 매우 다름에도 적합한 교

Roxburgh와 Romanuk가 2006년에 출간된 책, The Missional Leader: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에서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감당해야 할 리더십으로 주창된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이러한 선교적 리더라는 개념이 바로 기독교교육 모든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와 가치관, 언어와 환경이 다른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사가 교육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역할이 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학습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의 역할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내세와 영생의 소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에센셜 아웃사이더(essential outsider)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Wolters가 지적했듯이 학습자들이 계속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디렉션 가이드(direction guide)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황에 맞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상황화 교육의 3단계를 발표한바 있다. 이는 비상상황화(decontextualization), 상황화(contextualization), 그리고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 교육의 단계인데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방법론에 해당한다.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지난 회에서 필자는 주님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 가르치되 절대로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찾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교육학에서는 학습자 중심, 구성주의, 탐구 중심의 방법 등의 용어로 사용한다. 필자가 보기에 주님은 학습자의 능력과 학습상황에 따라 세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즉 주님은 Inquiry-based method(탐구 중심 방법: 학습자의 추론능력이 발달되지 못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경우), 발견주의 방법(discovery method: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원칙을 토론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 그리고 문제해결 방법(problem-solving method, 학습자가 일정한 수준의 학습능력이 있을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권면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을 적절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교육 방법은 언제나 새로운 아하~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으며 양의 기쁨과 통찰에 의한 만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살롬 교육학은 교사는 선교적 리더임을 선포하고 있다. 원래 선교적 리더(missional leader)라는 개념은

한다. 2007년에 나온 영화, Freedom Writers 역시 캘리포니아나 롱비치에 있는 Woodrow Wilson High School에서 가르친 Erin Gruwell 선생님의 평범한, 그러나 학생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필자가 보았던 감동적인 장면은 영화 중에 미켈이라는 학생이 그 선생님 앞에서 일기를 읽어주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 감동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원문을 읽어보자. “Its hits me, Mrs. Gruwell, my crazy English teacher from last year, is the only person who made me think of hope...I walk into the room and feel as through all the problems in life are not so important anymore. I am home.”

살롬의 교육학을 실천하자

살롬이 지향하는 바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사11:6-8).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살롬의 원칙이 이 세상에 드러워지는 한,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과업이다. 어떻게? 바로 살롬 교육학을 통하여 이는 가능하다. 다음호부터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한다.

hlee0414@gmail.com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5.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주는 조언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변화한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대인관계 등에서 가장 큰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 십대에 나타나는 언행의 특징

□자기 것을 완강히 주장한다. □부모를 계속 시험한다. □계속 집안에 긴장을 고조시킨다. □부모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만든다. □부모가 조금만 뭐라고 말해도 과잉반응을 보인다.

(2) 부모의 대처방안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인 성인으로 대우하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자주 칭찬하라. □자녀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믿어라. □자녀가 말할 때 끝

6. 전문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심개명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최효섭 박사의 기고문을 참고한 것이다.

1) 아이를 너무 떠밀지(Push)말라

빨리 자라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 과속 성장이다. 아이가 어른다우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개리 다우닝 박사는 '빨리, 빨리 세상에서 떠밀고 경쟁시켜 현대 아동들은 욕심스러워지고 아이의 심성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2) 아이를 알보지 말라

그들의 세계는 부모의 관찰보다 훨씬 깊다. 아기 취급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3) 감정을 퍼붓지 말라

어린이는 어른의 감정을 쏟는 휴지통이 아니다. 오늘은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고 했다가 다음날 손님이 왔을 때는 '어른들이 말하는데 말씀견하지 말고 가서 TV 나 봐' 하는 것은 감정적 지도이다. 아이의 지도는 자기감정의 영향을 떠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훨씬 건강하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서나 졸업 후에도 더욱 성공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들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잘한 행동을 아끼지 말라. 틴에이지 자녀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6) 아이를 나의 소유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대하라

아이의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생명이 다. 친부모도, 양부모도, 교사도 아이를 맡겨 주심에 감사하고, 잘 키워 다시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는 사명감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적 원칙이다.

7)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재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평이 아니라 모델이다. 훈계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 자신의 언행이다.

8) 아이의 현재만을 보지 말고 그 가는



이희숙 사모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3)

까지 들어줘라. □지속적이고 단호한 언행을 보여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정직하라. □이해하라. □인내하고 화난 상태에서는 대화를 피하라.

(3) 크리스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이것은 차오원 박사의 기고문을 참고한 것이다.

□성장하는 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부모의 양육의 태도를 수정하라 □성인으로 대접 받기를 바라는 그들을 이해하라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해도 부모는 그들을 거절하지 말라 □성장하는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존심에 상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녀의 친구를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10대의 반항은 그들 자신의 혼돈을 위장하려는 것임을 인식하라. □자녀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의 잘못을 자녀에게 사과 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자녀보다 성숙한 부모가 되라. □자녀들에게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음을 믿게 하라 □언젠가 부모를 떠날 자녀임을 각오하라. □자녀의 정서는 부모의 화평 속에서 자란다. □하늘에 정직한 부모는 자녀의 불행 보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자녀로 키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물질로 보상하지 말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비 상담을 받도록 하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심어주라. □감사하는 부모의 생활 속에서 자녀를 키우라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심어주라.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변화한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대인관계 등에서 가장 큰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부모가 잘못 반응할 때 자녀들이 벗어나갈 수 있다.

4)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교육의 성공은 부모의 요령이 승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누가 이겼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양보한 것이다. 양보의 상태가 교육이 잘된 상태이다. 자녀 교육은 둘 다 이긴 것이 아니면 둘 다 진 것이다. 대립이 나쁜 것이 아니다. 대립을 피하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대립은 성장에 도움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5)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며 '즉시'해야 한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칭찬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칭찬은 안심을 주고 격려가 되고 마음을 열게 한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됨으로써 다음 기회를 위한 자극이 된다. 칭찬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칭찬은 한참 민감한 10대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종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부모와 밀접하고 격

성과 미래상을 보라.

아침이 낮을 예언하듯 어린이는 어른을 예언하며, 작은 씨가 큰 나무를 기약하듯 어린이는 미래의 세계를 기약한다. 그러므로 아이에게서 볼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며 현실이 아니라 꿈과 장래이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자.

9) 아이를 통틀어 일반화하여 보지 말라

한명 한명이 다 특별하다.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귀중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그 차이점이란 면에서도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어느 아이든지 개성과 특징과 무엇인가의 소질이 있다. 그것이 차이점이며 그 차이점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다.

10) 강요도 야부도 피하고 진실을 보이라

토머스 고든은 강요와 억압을 제 1법, 야부와 타협을 제 2법으로 구분하고 이 양자의 결합을 보충하는 것이 제 3법, 곧 '진실을 품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다. 때로 책망도 훈계도 칭찬도 진실의 발로가 되어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우리는 왕의 골육이이다(삼하5:1-5)

본문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상16:13에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후로부터 약 2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만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기름부음을 받으셨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감격스러운 대관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린 한 소년 목동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삼하5:6-9)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야 하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요새를 막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왕이 왔으면 순순히 땅을 내줘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조종들과 가서 한 손에 빼앗고 그곳에 다윗 성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가 마음과 뜻

을 같이해 나가면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년동안 가장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지파들이 단합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그니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해 나가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삼하5:10-11)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늘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해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더 강해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됐고 형통했고 승리했습니다. 온 사방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요새인 예루살렘 시온성에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성을 겹겹이 쌓을 수 있었고 두

로망 히람이 좋은 나무와 일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었으며 여호수아시대부터 쉬지 않고 괴롭혀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도 한순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삼하5:12)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 "안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인정하다, 깊이 생각하다, 경험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해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돼서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것이 자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력이 점점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해지는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금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삼하5:12-16)

계속해서 살펴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하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나 혼자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십니다. 진정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토 다윗이 여호와께 들어 가로되(삼하5:17-19)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르브람 골짜기에 편만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다윗은 예루살렘 요새로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내가 단정코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신대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해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공생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모든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Kumran, Dongsan, Roman Catholic, etc.

인/터/뷰

제1회 적정기술 선교세미나 강의 차 LA 방문한 김만갑 박사

GMAN선교회(대표 김정환 선교사)가 지난 8일 오후 3시 SON미니스트리(13921 Artesia Blvd. Cerritos)에서 G-세이버(GOD Saver)의 발명자 김만갑 박사를 초청해 제 1회 적정기술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LA를 방문한 김만갑 박사는 “적정기술이란 사회적 용어로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술을 의미한다”며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이나 소외된 교외 지역에 알맞은 단순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자본집약적 기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적정기술의 권위자로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에 의해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널리 보급된 G-세이버의 발명자이기도 하다. G-세이버는 ‘하나님(GOD)-구원자(Saver)’라는 의미의 제품명. 한마디로 몽골의 계

에서 사용하는 화로의 열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해주는 축열기 모공돌의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3분의 1로 줄여준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몽골은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몽골 현지 겨울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면 새벽 3시쯤 연료가 다 소진되어 추워지게 되고 그래서 잠을 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세이버 김만갑 박사, 김정환 선교사

축열기 G-세이버 발명, 몽골서 연료비 3분의 1로 줄여 GMAN선교회, 비즈니스 선교 차원으로 적극 추천

다시 연료를 피워야 하나까요. 하지만 G-세이버를 사용했더니 온기가 아침까지 이어져서 큰 호응

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김만갑 박사는 “코이카(KOICA) 전문위원으로 몽골에 갔었다. 그

래서 몽골에서 3년, 캄보디아에서 5년, 라오스에서 1년 반 등 9년여를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실

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은 물론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수익성과 유용성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 적정기술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의 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GMAN 선교회 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미주에서 처음으로 적정기술 선교세미나를 작게나마 시작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적합한 선교방식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평신도들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게 되는 선교 중 비즈니스선교가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선교특성상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거나 부족한 자가

준비니스 차원으로 각 선교현장에 적절한 선교라 여겨지며 적정기술을 통한 선교는 현지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선교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앞으로 적정기술 선교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적정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물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 평신도와 목회자 등 누구나 참여해 새로운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갑 박사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건설부장을 역임했고,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건축대학 종신교수와 NGO 기아대책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있다.

연구개발로는 G-SAVER(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 GGGI 중기청 공동프로젝트(쓰레기소각장, 온돌 건조장), 캄보디아에서 정수필터 개발(기아대책기구와 효성그룹 공동 보급), 온돌형 곡물 건조장 개발 및 발표(미국 IEEE-GHCT)가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박준호 기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 선택할 시기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 김태오 목사부부 기자회견

김태오 목사와 세라김 사모(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한인대표)는 7일 남가주를 방문해 “세계관의 전쟁과 충돌, 그리고 대안 책”이란 주제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오후 2시 올림피아교회(담임 정창수 목사)에서 함께 자리한 김태오 목사부부는 미국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 인생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에 가장 기본 되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들과 성경적 원리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모독하는 최악의 시기”라고 단언하며 “이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기준과 원리 원칙들이 가장 가까운 것, 또는 성경 말씀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다음세대의 미래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김 목사부부는 현재 우리의 성경적 가정, 생명, 결혼, 자녀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하나씩 열거해가며 미국의 위기를 지적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속한 오바마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결정한 것들은 놀랍기 그지없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동안 매년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는데

2012년 백악관에서 최초의 게이 프로젝트가 있어, 당시 친동성애 정치인과 운동가들에게 큰 뉴스가 됐고 이후 동성결혼이 최초로 미전역에 합법화됐으며 지난해 8월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한 남성을 백악관 인사관리 정책자리에 앉혔다.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에는 자신을 게이라고 알린

Eric Fanning을 미국 육군참모총장으로 뽑았다는 것, 또한 지난 3월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 장관자리에 매우 친이슬람이며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John B. King을 뽑았고 John B. King은 이 직책을 받자마자 미전역 학교에서 무슬림학생들이 왕따 당하지 않도록 무슬림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All Gender 화장실 법안을 준수할 것

시대 흐름, 말씀으로 분별하고 자녀 미래 지켜줘야

을 추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이제는 정부의 자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하는 크리스천 학교들까지 같은 범령을 따르라는 협박편지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최악의 시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김태오 목사부부는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해 바른 교육에 함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태오 목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호세 소재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왔으나 지금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적세계관 아카데미를 위해 뛰고 있다.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를 시작한 그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과 보호를 위해 태동했다. 시대의 흐름을 말씀으로 분별하면 자녀의 상태를 알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교육하게 된다. 이 교육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

표적인 비성경적 가치관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분석함으로써 세상이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을 제자화하기 전에 부모와 교회들이 먼저 자녀들과 차세대를 예수님의 제자화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차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올림피아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김태오 목사, 부부

고민들을 올바르게 알고 파악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자녀

에게 시작할 것이다. 부모들이 먼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는 8-10주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2박 3일로 구성된 패밀리캠퍼런스, 또는 하루세미나 등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봄 북가주에서 열린 성경적세계관아카데미에 많은 이들의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2일 또다시 개최된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 세미나를 원하는 분들과 이 사역에 동참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408-309-40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17 YWAM Senior mini DTS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2 Corinthians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교육일정

2017년 1월 9일~2017년 2월 3일(4주)

도미니카 베이시 도착일자는 1월 9일이며 베이시 출발일자는 2월 3일 부터입니다.

참가신청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seniordtsdr@gmail.com

지원자격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써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으신 분

기타문의

미국 +1 808-345-0807(공 현 선교사), 070-4606-6628(인터넷폰)

+1 808-333-2029(지미 채 선교사)

+1 301-655-2209(전 구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1 809-914-1930(김현철 선교사)



Km 18 Carretera Yamasa Santo Domingo Norte, Republic of Dominicana